

Breeze

브리즈 Life & Beauty Magazine | BREEZEKOREA.COM

CMN Cosmetic
Marketing
News



9 772092 587004

ISSN 2092-5875

2018. NOVEMBER

Vol. **159**

VEGAN
BEYOND ORGANIC!

Moist Light & White
by CreamSkin

Necks & Decollete

ALL ABOUT
PORE CARE

Viva, Lipstick Craft

2019 S/S HERA Seoul fashion Week

Autumn
Anti-aging

- 캔메이크 전속모델 정채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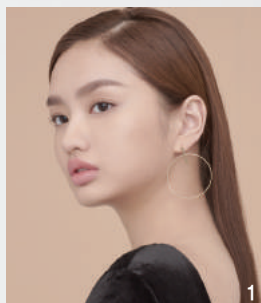
perfect serum

머리끝까지 빛나게 나만의 스타일을 연출하다
7가지 오일각테일의 손상케어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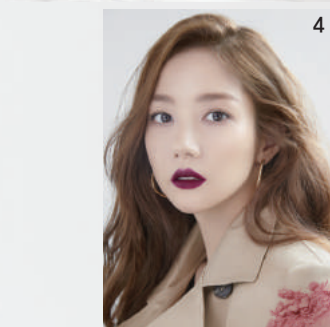
미장센 퍼펙트 세럼



**mise
en
scène**
미장센



뮤즈의 계절 Say Yes, Transparency!



피부가 가진 자생력을 복돋아 주는 성분을 화장품에 담는 것이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실제 나이보다 동안으로 보이게 하거나 피부 톤을 균일하게 맞춰 주는 등, 자생력을 키워주는 화장품이 눈길을 끌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천연 화장품의 열풍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천연 성분을 담은 기능성 화장품들은 피부에 자극을 덜어주면서 현대인들이 겪는 스트레스로 인해 들쭉날쭉한 피부 리듬을 정돈해 주는 것은 물론, 자연이 주는 심적 안정감도 무시할 수 없다. 눈이 번쩍 뜨일 정도로 드라마틱한 효과를 강조하지 않아도 피부 속부터 개선하고 피부 본연의 효과를 끌어올리는 화장품이 트렌드를 주도하는 시대. 이는 고도화된 화장품 산업을 반영하는 결과이며 안티에이징에 대한 소비자들의 변화된 시각을 반영한다. 잡티 하나 없이 맑은 피부에 립스틱이나 살짝 넣어준 새도 컬러 하나만으로도 변화무쌍해지는 초겨울 뮤즈들의 시즌이 왔다.

편집장 유수연

1. 에스쁘아 테이핑 컨실러 파운데이션
2. 랑콤 압솔뤼 드라마 마프 수지 네온 코랄
3. 키엘 버터 립 슬리핑 마스크
4. 시세이도 모던메트 파우더 립스틱 벨벳 로프
5. 정샘물 아티스트 블러쉬터치



볼 때마다
새로운 화장품 정보가 있다
m.cmn.co.kr



CMN Cosmetic Marketing News



- 07 — **TREND**
Dear, Our Golden Days
Daily Fantasy & Print Paradox
Collection BackStage Make-up
- 12 — **SEASON ISSUE**
**AUTUMN
ANTI-AGING**
피부, 본연의 힘을 키우다
- 20 — **BEAUTY SOLUTION**
Moist Light & White
by CreamSkin
- 22 — **GET THE TIP**
All about Pore Care
퍼펙트 케어를 위한 Q&A
- 26 — **BEAUTY CLINIC**
Athos Laser Treatment
- 28 — **ZOOM IN**
Vegan, Beyond ORGANIC!
- 32 — **NEWS**
Beauty / Company & Brand
Event / Campaign / Fashion News
- 43 — **BEAUTY PLUS**
Necks & Decollete
- 44 — **CULTURE**
Enjoy, like a festival!
- 46 — **HOROSCOPE**
Depend on You!



두피의 운명을 바꿀 45년 두피과학의 결정체

려 자양윤모 탈모증상케어 샴푸

볼 때마다
새로운 화장품 정보가 있다
m.cmn.co.kr



CMN Cosmetic Marketing News

Vol. **159**

Life & Beauty Magazine [브리즈]
Breeze

브리즈 Breeze[bri:z]는 산들바람, 미풍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로 살랑이는 미풍처럼 자연스럽게 트렌드를 받아들이고 조금씩 자신의 멋을 만들어가는 2030 여성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대변하는 용어입니다.

2018. NOVEMBER

대표이사 발행인 조병호 Byung-Ho, Cho

EDITORIAL DEPT.

편집장 유수연 yuka316@cmn.co.kr
 기자 문상록 mir1967@cmn.co.kr
 기자 이정아 leeah@cmn.co.kr
 기자 심재영 jysim@cmn.co.kr
 기자 신대욱 woogi@cmn.co.kr
 기자 박일우 free@cmn.co.kr

ART DEPT.

디자이너 YEON k-hhee@hanmail.net

ADVERTISING DEPT.

광고국 국장 김민수 Min-Soo, Kim

HR & ADMINISTRATION DEPT.

부국장 조은선 Eun-Sun, Cho

PUBLISHING DEPT.

라이프 & 뷰티 매거진 브리즈 Breezekorea.com

ADDRESS

150-103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146 E&C 드림타워 1110호(양평동 3가)
(주)주간신문 CMN

편집문의 02-2628-5454

광고문의 02-545-5454

인쇄 (주)태신인팩 www.inpack.co.kr

Breeze 2018년 11월 1일 발행 통권 159호
 등록일 2005년 3월 8일 등록 등록번호 영등포 라 00036
 Breeze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Cmn.All Right Reserved.

TONYMOLY®
street culture



All New Cover

토니모리 더블 커버 파운데이션



자연과 인공의 밀월시대 Coexit with Nature!

요즘 모든 트렌드는 인공과 자연의 공존이다. 삭막한 도시를 살아가는 디지털 세대들의 이상형이 '사라져 가는 자연'이라는 사실은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우주와 미래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던 시대를 벗어나, 가공되지 않는 순수 자연을 일상속에서 즐긴다는 것. 어떤 의미에서는 모두 비슷비슷하지만, 첨단 기능과 실용성에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컬러와 소품들, 그리고 유행 차원을 뛰어넘은 인공과 자연의 공존으로 세상이 더욱 발전되고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사실, 요즘 세대는 군더더기를 싫어한다. 말도 짧게 하고, 될 수 있으면 생각하고, 없애면서 본론으로 직진하곤한다. 결론을 빨리 내고 싶어 하고, 생각하는 것을 귀찮아하는 성향들은 아쉽지만, 그만큼 빠른 속도로 세상의 변화에 적응해 가는 현상으로 이해한다. '군더더기를 배제한 절제의 미학을 추구하는 이런 흐름은 고도로 농축된 정신세계를 최소한의 표현 속에 가두어 버림으로써 '최상의 아름다움'을 표현한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물론, 그렇다고 모든 것을 그냥 없애고 줄인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가장 편하게 하는 컬러와 디자인들이 꽃이나 새 등의 자연을 모티브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포인트.

아무튼, 요즘은 뭔가 거추장스럽게 장식하는 것보다 무조건 버리고 없애고 하여 아무것도 없게 한다는 신 미니멀리즘이 유행이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극도의 불편함을 의미하는 것인데, 정말 그럴까? 엄밀히 말하면, 요즘의 미니멀리즘은 모든 것이 시스템화 되어 있어 생활에 필요한 살림살이가 구석구석 숨어 있다는 것이지 실제로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다르다.

인테리어 트렌드도 마찬가지다. 예전의 친환경 바람은 구조도 벽재와 천연페인트, 천연벽지 등 꾸미기 혹은 나무나 돌 등을 직접 사용해 집안에 연못이나 미니정원 등을 들이는 방식이었다면, 요즘은 한 단계 더 진화해 시멘트나 화병, 금속 등을 가공해 새로운 느낌으로 자연을 해석하고 접목한다. 자칫 내추럴에 집중되다 보면 오만 잡동사니 모음이 되어 불편해진다는 이유다.

그런 의미에서 화장품도 마찬가지. 천연이 좋다는 것은 다 알지만, 기능성이 검증되지 않거나 사용방법이 불편한 천연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단순하고 심플하게! 결론만 말하라는 요즘 세대들의 니즈가 천연화장품의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말해준다.

편집장 유수연





아모레퍼시픽
뷰티 브랜드 헤라가 공식
후원하는 '2019 봄·여름(S/S)
헤라 서울패션위크'가 지난 20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총 60개의
패션디자이너들이 각자의 컬러와
개성으로 풀어낸 컬렉션들로
제안하는 내년 춘하 패션 &
뷰티 트렌드를 살펴본다.



2019 S/S Hera Seoul Fashion Week

DEAR, OUR GOLDEN DAYS

벌써 내년! 페미닌한 드레스부터 큐트한 원피스, 동심을 자극하는 유니크한 디테일까지. 60인의 패션디자이너와 메이크업 브랜드 HERA가 발신하는 내년도 춘하 헤라 서울 패션위크가 폐막됐다. 시즌을 앞서 보는 디자인의 향연. 패션과 뷰티 모두 위트와 패러독스가 가득하지만 미니멀리즘은 기본. 모두가 디자이너고 모두가 소비자인 시대. 앞선 만큼 보이고 보인 만큼 풍요로워진다.

에디터 유수연 · 사진 제공 헤라서울패션위크

2019 S/S
Hera Seoul
Fashion
Week

Daily & Fantasy Print Paradox

프린트 & 컬러블로킹 믹스매치의 향연

2019 봄/여름 시즌 트렌드의 키워드는 여전히 믹스매치. 패미닌과 매니쉬일수도 있고, 디지털과 아날로그일수도 있으며, 쇼츠와 롱의 결합과 해체의 순간들일 수 있다. 어찌됐든 디자인 전성시대의 풍요로운 컬렉션임을 실감한다.

도출할 수 있는 모든 요소가 총동원되었지만, 편안하게도 전체적인 느낌은 쿨하고 미니멀하다. 아웃도어와 스포츠웨어를 중심으로 한 '스포티즘'이 패미닌적 요소와 프린트물과 결합되어 기존 꾸뛰르 메종들의 질서를 역 리드하고 있는 현상도 여전하다.

대기오염과 환경에 대한 우려가 모든 트렌드에도 영향을 미쳤을까? 프린트를 제외한 기본 컬러는 뉴트럴. 애슬레저 트렌드 보편화와 함께 하이엔드 감성의 바이커 쇼츠가 잇템으로 부상하고 있다. 뉴욕에서 런던, 밀라노, 파리로 이어지는 2019 봄/여름 패션위크 런웨이 무대에서도 스포티즘의 영향을 받은 애슬레저 아이템들이 대거 쏟아져 나왔다. 특히 캐주얼한 바이커 쇼츠가 패션위크에서도 발견된다.

이외 패미닌 드레스와 남성적인 실루엣의 아우터. 풀커버 프린트, 롱아우터에 쇼츠, 레이스의 재발견 등등. 패션은 지금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데일리 판타지로 진화하고 있다.



라이(LIE)
새로운 세상을 향한 여성의 도전정신, 강인함과 자신감, 역경을 이겨내는 내적인 아름다움을 테마로 완성한 컬렉션. 환상적인 컬러 팔레트와 섬세한 플로럴 패턴이 소의 완성도를 높여준다.



로맨시크 (ROMANCHIC)
70년대 글램 록과 믹스된 프릴, 러플 레이스, 디스코볼처럼 반짝이는 스앵글 스커트, 환란한 쇼걸의 사이니 프린트 톱, 레오파드 프린트, 디스코 그래픽으로 이어지는 걸 크리시와의 랑데부.

비엔비트웰브 (BNB12)
민간 신앙 중 하나인 '도깨비' 모티프로 한 프린트의 퍼레이드, 혼돈의 시대를 해학적으로 풀어내는 도깨비의 시선도 이 시대가 낳은 꾸뛰르 패러독스.



최복호 (CHOBOKO)
CHOIBOKO REBOOT를 테마로 디자이너 최복호의 데뷔 45주년을 기념하여 발표된 컬렉션. 프린트와 정제된 라이프스타일로 진화되는 패션디자이너의 세계를 피력했다.



DISNEY × LOTTE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주인공 중 하나인 미키 마우스의 90주년 기념 한정판을 선보이는 롯데와 디즈니의 콜라보 레이션. '미키 인 서울'의 테마로 개최됐다.

미스지콜렉션 (MISS GEE COLLECTION)
영화 '세르부르의 우산' 속 한 장면, 푸른 지중해에서의 바캉스, 상큼한 파인애플의 향기 등에서 영감을 받아 긍정적인 경쾌한 컬렉션. 원컬러 착장에 컬러 슈츠나 백이 포인트.



빅 팍(BIG PARK)
그림엽서 속 사진을 연상시키는 아름다운 풍경의 스위스 레만 호수로의 여행이 메인 테마. 클래식한 아이템과 기본적인 소재들로 구성된 릴렉스함과 낭만을 담았다.



두 칸(DOUCAN)
원초적인 사랑의 아름다움을 골드, 레드, 옐로, 블루 등 강렬한 컬러와 꽃과 잎 등의 자연 모티브들이 동양적이면서도 모던한 그래픽 프린트로 형상화시킨 컬렉션.

에이벨(A, BELL)
옷보다는 옷을 입은 사람에게 집중하는 고풍한 '콰이어트 룩(quietlook)', 아이러니컬하게도 원 컬러의 스타일링이 수많은 컬러와 디테일에 지친 눈을 정화시켜주는, 뜻밖의 카타르시스를 선사한다.



그라피스트만지 (GRAPHISTE MAN.G)
오버사이즈와 유닉스 언밸런스 커팅으로 주목 이룬 컬러풀 하며 화이트 넘치는 그라피티. 의상 곳곳에 현란하게 채색된 패치워크의 즐거움.



쿠만 유혜진 (KUMANN YOO HYE JIN)
독특한 각도, 볼륨의 소매로 주목을 끈 컬렉션. 곡선과 직선, 서양적 테일러링과 동양적인 미학이 공존한다. 새롭고 신선한 패턴과 디자인이 선보인 디자이너만의 리얼리즘의 재구성.



최보훈(최이브키)



에이벨(A.BELL)

Collection BackStage Make-up Viva, Lipstick Craft!

한없이 투명한 '내추럴 & 비비드'에 집중하다

2016 S/S 시즌부터 총 7회의 시즌 동안 헤라 서울패션위크의 백스테이지 메이크업을 제안해 온 헤라는 이번 시즌도 전체 참가 브랜드인 60개 디자이너 쇼의 모든 메이크업을 총괄하며, 앞서가는 메이크업 트렌드를 제안했다. 투명하게 표현된 피부 표현과 얼굴에 혈색을 불어넣는 핑크 블러셔, 그리고 매트하고 정제된 입술에 집중한 2019 S/S 메이크업 트렌드, 개성 강한 클리터와 원포인트 컬러들이 눈에 띈다.



로맨시(ROMANCHIC)

LIP Vitamin Red + Urban Nude 텍스처와 컬러배리에이션의 차이

통통 튀는 색감이 느껴지는 비타민 레드와는 대조적으로 도시적인 분위기를 뽐내내는 누드 립 컬러가 공존하고 있는 것도 특징. 기본적인 누드 컬러에 메이크업 스킵이 더해진 '어반 누드'도 내년 봄·여름을 이끌어갈 립 메이크업이 트렌드로 꼽힌다. 색조의 상징으로 '립'을 강조되는 만큼 디자이너마다 다양한 립 메이크업을 선보였다. 텍스처와 컬러 배리에이션으로 쇼의 생기와 활력을 돋보여 주는 비타민 레드 컬러의 포인트 메이크업과 베이지부터 코랄 핑크 캐멀 브라운 등 피부 컬러와 최대한 맞춘 누드 컬러의 등장도 눈에 띈다.

레이(LA)

빅 피크(BIG PARK)



쿠만 유웨진(Kumann YOO HYE JIN)



에이벨(ABEL)



그라피스트망(GRAPHSITE MANG)



두리(DURIAN)

FACE

디즈니X롯데백화점 (DISNEY X LOTTE DEPARTMENT STORE)

Real Skin
베이스 메이크업의 위엄

이번 시즌에도 역시 '리얼 스킨'이 두각을 드러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듯, 메이크업의 모든 요소를 최대한 간소화하는 메이크업 룩! 쿠만 유헤진 역시 건강하면서도 투명한 베이스 메이크업에 집중했다. 결점 없는 피부 표현의 베이스 메이크업과 컬러 사용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미니멀 메이크업이 대세 메이크업으로 자리했다. 건강한 혈색은 물론 촉촉한 피부 표현을 완성해 은은하게 배어 나오는 고급스러움이 드러난다. 베이스 메이크업은 촉촉한 광채와 자연스러운 피부결을 살려주고, 빛을 따라 흐르는 광대뼈 부분에 하이라이터로 은은한 반짝임을 더해줘 얼굴 전체의 입체감을 살려주는 것이 포인트. 페이스 디자인 블러셔를 광대뼈 중심으로 예란지 컬렉션에서는 사선으로 블렌딩해 얼굴 윤곽을 또렷하게 잡아주며 마무리했다.

미스지콜렉션(MISS GEE COLLECTION)



로만치(ROMANCHIO)



그라피스트망(GRAPHSITE MANG)

EYE

Natural Glitter
화사함으로 한톤 밝음!

브라운 컬러를 활용한 음영 메이크업이 여전히 마크되고 있다. 특히 눈썹 앞머리 결을 살려 인상을 시원하게 보여주는 것도 테크니컬 한 방법의 하나. 자연스럽게 결을 살려주면서, 본연의 눈썹 컬러보다 한 톤 밝은 카라멜 브라운 컬러로 한층 밝게 연출해 주는 메이크업이 주목되고 있다. 특히 2019 SS에는 언더라인의 점막을 꼼꼼히 채워 또렷한 눈매를 완성한 아이 메이크업이 두드러진다. 브라운 계열로 구성된 아이 색도를 믹스해 아이라인을 따라 퍼 발라 음영을 주면 가벼우면서도 그윽한 눈매가 탄생된다. 속눈썹은 다소 과장되게 표현되기도 하지만, 화이트 혹은 컬러 없이 펄감이 살아 있는 글리터를 눈두덩에 글로우 하게 얹어 은은하게 빛이 나는 화려함이 눈에 띈다. 음영 색도 위에 투명 글리터를 얹기도 하는데, 이때는 마스크라로 속눈썹은 강조하되 아이라인은 생략할 것. 브라운과 베이지 컬러를 믹스해 눈두덩 전체에 발라주고, 눈두덩에 반짝이는 투명 립글로스를 덧발라 글로시하게 마무리해준다.



비엔데벨트(BIENDEVELT)

Autumn Anti-aging

피부,
본연의 힘을
키우다

쌀쌀한 초겨울 날씨가 시작되면서 칙칙하고 건조한 피부 때문에 고민이 늘어간다. 건조한 공기와 찬바람 때문에 피부속 수분이 날아가 각질층이 더욱 두터워지면서 상태가 악화되는 피부. 수분 부족으로 발생한 피부건조는 피부의 갈라짐과 탄력 저하를 발생시키는 노화의 주범이다. 수분관리를 비롯한 초겨울의 피부관리의 포인트.

에디터 유수연





Moisture up

속부터 차오르는 수분감



CLEANSING

쉐어버터와 올리브 오일, 천연 에센셜 오일 등이 함유된 보습 탄력 비누로 중력 방향 반대로 쓸어 올리듯 부드럽게 롤링하는 간단한 셀프 마사지를 실행한다.

1 STEP



BOOSTING | 세안 후 3초 이내!

부스팅 에센스는 다음 단계에 사용되는 제품의 흡수율을 높여주고 그 효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세안 후 급속도로 떨어지는 수분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3초 내에 발라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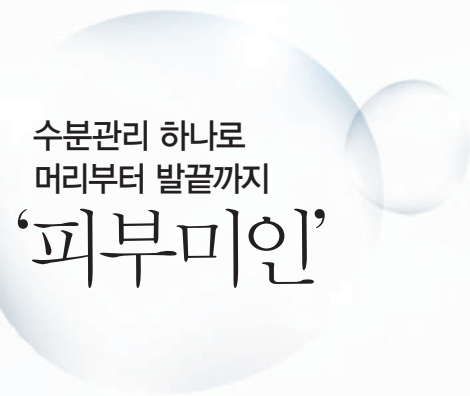
2 STEP



CREAM | 세안 후 1분 이내!

부드러운 수건으로 물기를 두드려 닦은 후 1분 이내에 보습 크림을 발라 마무리해 준다. 탄력을 높이기 위한 탄력 섬유인 엘라스틴이나 히알루론산의 함유가 높은 제품을 사용한다.

3 STEP



수분관리 하나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부미인'

건조한 피부는 단순히 얼굴만의 문제가 아니다. 몸도 각질이 쌓여 가려움증이 생길 수 있고, 심할 경우 아토피까지 유발할 수 있다. 또한 두피는 탈모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에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마시고, 비타민 A와 C가 풍부한 과일 채소를 섭취하는 것은 기본. 가습기를 설치해 실내 습도를 60%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보습력이 풍부한 제품을 사용해 피부의 우수분 밸런스를 맞춰 주는 것도 포인트.

Tone Up! Tight Up!

조도를 높이고 볼륨을 올린다

초겨울, 아침저녁 큰 일교차, 건조해진 날씨로 인해 건조함 뿐만이 아니라, 탄력이 떨어지는 데다, 무너진 바디라인까지 피부의 고민이 조금씩 늘어나는 계절. 이런 '노화의 계절'에 필요한 것은 톤업과 탄력. 기본부터 철저한 스킨케어가 더해진다면 그 효과는 배가된다. 피부의 조도를 높여 화사한 피부 표현과, 탄력이 떨어진 얼굴에 볼륨 회복시켜 피부가 가진 재생력을 복돋아 피부 톤을 균일하게 맞춰 줄 수 있도록 자생력을 키워 주는 화장품이 눈길을 끌고 있다. 천연 화장품의 열풍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천연 성분을 담은 기능성 화장품들은 피부에 자극을 덜어주면서 현대인들이 겪는 스트레스로 인해 들쭉날쭉한 피부 리듬을 정돈해 주는 것은 물론, 심적 안정감도 주고 있다.

1. 끈적임 없이 고급스럽게 녹아드는 텍스처가 목과 가슴의 피부에 탄력감을 선사해 처짐을 잡아주는 제품. 노에비아 넥&데콜레드 크림
2. 특별한 활력 성분인 '유니 퍼펙트 콤플렉스'를 함유해 가을철 칙칙해진 안색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바이오 유니스킨 무스 & 펄 데헤브
3. 순도 높은 독일산 마유가 피부 본연의 활력을 선사해주는 보습 탄력 케어 제품. 게리송 마유크림 마스크
4. 안티에이징과 화이트닝 기능을 동시에 담았다. 주름과 색소 침착이 고민되는 부위에 사용하면 집중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데코르테 어드밴스드 아이샷
5. 인공 거미독과 인공 거미줄 단백질 등 독특한 성분에 더미 기술을 적용한 피부 탄력, 미백, 주름개선 이중 기능성 화장품. 더마에스테 프롤틴톡세럼

피부에 강한 자극을 주어 눈이 번쩍 뜨일 만한 드라마틱한 효과를 나타내기보다는 피부 속부터 개선하고 피부 본연의 효과를 끌어올리는 요즘 화장품들.



Face

울긋불긋 트러블의 원인도 '건조'

온도와 습도에 가장 민감한 부분으로 조금만 건조해도 하얗게 각질이 생겨 청결하지 않은 이미지를 주기 쉽다. 특히 눈과 입 주위는 피부가 얇고 땀샘과 피지선 분포가 적어 건조함이 심하고 주름이 생기기 쉽다. 울긋불긋한 피부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기에 특별 케어가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보습제라도 모공이 청결하지 않다면 수분이 잘 흡수되지 않는다. 세안 후 1분 이내에 충분한 수분 공급은 기본. 눈가에는 아침저녁으로 아이크림을 발라 주름 생성을 예방하고 입가에는 에센스 크림을 촉. 촉. 촉! 특히 건조한 부분에는 페이셜 오일을 수분크림과 섞어 사용하거나 부분적으로 발라주면 오일 보습막을 형성해 수분이 잘 보존되며 적당한 유분을 공급해 촉촉함을 오래 유지할 수 있다.

1. 건조해진 피부를 빛내고, 건강한 피부로 가꿔주는 크림. 달팽 로즈 하이드라-너리싱 에센셜 오일 엘릭시르
2. 조조바 오일, 타야거 넛츠 오일, 해바라기씨 오일 등 자연 유래 성분만을 100% 담은 제품. 쏘내추럴 시그니처 페이스 오일
3. 스킨케어 산뜻한 흡수력을 높이고 크림의 보습력을 살린 제품. 라네즈 크림 스킨
4. 장미 추출물의 탱탱한 핑크 젤이 눈가에 사르르 녹아들 듯 스며들어 끈적임 없이 수분을 채운다. RMK 컨센트레이티드 아이 젤 5. 유해 환경을 차단하고 피부를 탄탄하게 채워주는 제품. 골레드브 보떼 라크렘으 다리아 페트릴리 리미티드 에디션 6. 피부 안팎으로 유수분 밸런스를 지켜주는 앰플. 잇츠스킨 파워 10 포뮬라 오일 앰플 7. 불가리아 로즈 오일로 얼굴부터 바디까지 윤광 피부로 가꿔주는 진정 보습제. 초루리아 불가리아 로즈 스킨 컨디셔너



피부 회복 프로젝트

아침저녁 꺾. 꺾. 꺾! 모공에 탄력 주기

계절에 따라 피부 상태는 달라지지만 특히 겨울철에는 피부의 건조함으로 인한 노화가 가장 문제다. 나뭇잎의 수분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급격하게 날아가는 피부 속 수분 때문에 눈가 주름, 피부의 탄력도 매일매일 똑똑 떨어지는 것이다. 아침저녁 세안 후 얼굴의 미인 혈점을 꺾꺾 눌러주는 것만으로 어느 정도 노화를 방지할 수 있다. 특히 화장품을 바르기 전 피부 근육을 이완시켜 주는 혈을 적절히 눌러주면 흡수력을 높일 수 있다. 바른 후에는 피부 속 영양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모공에 탄력을 주는 마사지가 효과적이다.

★ 초간단 영양 듬뿍 마사지 '3박자 마사지 법'

1. 검지 손가락 바닥으로 이마의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3번씩 눌러준다.
2. 얼굴 라인을 따라 원을 그리듯 꺾꺾 눌러준 후 턱끝까지 이동한다.
3. 턱끝에서 인중 - 콧볼 - 미간 - 이마 순으로 눌러주며 이동한다.
4. 이마의 가운데 끝을 다시 한번 눌러준다.



Body & Hair

가을 건조를 잡아라 천연성분 보습제 고르기

일교차가 크고 건조한 가을철에는 피부가 자극을 받기 쉬워 관리의 중요성이 커진다. 특히 건조함이 이어지면 몸이 가렵고 심하면 건조증까지 올 수 있어 평소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습 기능을 갖춘 바디샤워 제품, 피부 트러블 유발 원인 중 하나인 섬유 속 유해균을 제거해주는 세탁세제 등 환절기 피부 관리에 도움이 되는 바디 & 케어 아이템을 골라주는 것이 중요하다. 세정효과가 아무리 높아도 자극이 강한 제품은 NO! 최근에는 무자극 무향료, 천연 제품을 선호하는 추세다. 화학성분의 경우 일시적인 세정력은 뛰어날 수 있지만, 피부건강에 적지 않은 해를 미칠 수 있으므로 파라벤, 광물유, 설페이트, 인공색소, 트리에탄올아민 등 5가지 유해성분을 첨가하지 않은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다. 또한, 건조한 가을 겨울에는 세정력도 중요하지만 보습력을 우선해 제품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 샤워 중 건조를 예방해 샤워 후에도 당김 없이 촉촉함을 배가시키기 위해서는 예민한 피부가 아니라도 과도한 스크럽은 삼가는 것이 좋으며, 가급적 드라이어 등 기구를 사용하여 말리기보다 자연 공기 속에서 완전히 몸을 말려주는 것이 좋다.

Body



- 1 지나치게 뜨거운 물이나 자극적인 제품의 사용과 과도한 각질 제거는 삼간다.
- 2 미지근한 물에서 10~15분 정도 자극이 적은 바디 전용 클렌징 제품으로 세정해준다.
- 3 샤워 후에 약간의 물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전용 보습제품을 발라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 4 보디 미스트를 수시로 뿌려주면 보다 오랜 시간 촉촉함을 유지할 수 있다.
- 5 피부 탄력을 유지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핵심성분인 콜라겐 등 안티에이징 성분으로 보습과 탄력을 동시에 관리해 준다.

1. 피부의 딥 클렌징은 물론, 피부 진정, 보습, 영양 강화 등 트리트먼트 효과를 더한 자연 유래성분의 올인원 케어 제품. 쉐레 랩, 더마틱™ 리스타트 헤어&바디케어 4종 2. 갈라지거나 엉키고 부스스한 머릿결 등 모발 고민에 맞춘 곡순상 모발용 제품. 케라시스 어드밴스드 앰플 샴푸&트리트먼트 3. 제주도산 탄산온천수를 담아 두피 유분은 물론 답답한 두피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탈락시켜 주는 두피 청결제. 라벨영 쇼킹두피탄산팩 4. 세안 직후 찰나에 사라지는 피부 수분을 지킬 수 있도록 욕실에서 사용 가능한 수분 세럼. 케어존 노르데나우 워터 샤워 세럼 5. 두피 청결과 수분을 유지해주는 시카카이 추출물과 모링가 성분이 함유된 두피 유수분 밸런스 유지와 영양공급 제품. 덕터월리엄제이 프로젝트 더마 시카카이 모링가 샴푸

Hair

- 1 머리는 하루에 한 번, 아침보다 저녁에 감는다.
- 2 자극이 적고 수분 함량이 높은 제품을 이용해 모발 뿌리 끝까지 깨끗이 씻어낸다.
- 3 예민한 두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손톱 아닌 손가락의 바닥을 이용해서 마사지해준다.
- 4 헤어 마스크나 트리트먼트 제품은 1주일에 1~2회, 두피 마사지를 병행하거나 스팀 타월도 두피를 감싸주면 혈액순환 강화와 보습효과를 높일 수 있다.
- 5 모발의 외피를 강화해주는 에센스나 오일을 사용하면 건조함을 예방할 수 있다.

1. 건조한 바디에 보습과 윤기를 주는 스크럽제. 라벨영 쇼킹단짠바디 스크럽 2. 시어버터 보다 1.5배 강력한 보습력을 지닌 오가닉 쿠푸아수 버터를 함유한 바디제품 라인. 클로란 모테니컬 바디로션



Check point

More Soft More Smooth Touch my Skin!

Skin Care

바짝 메마른 가을. 얼굴만의 문제가 아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촉촉하고 부드럽게 지켜주는 초겨울 화장품.

청명한 하늘과 분위기 있는 정취에 설렘이 가득하지만 가을철 큰 일교차와 찬바람이 부는 피부는 괴롭기만 하다. 낮은 습도와 큰 일교차는 피부의 수분 함유율을 떨어뜨려 각질과 갈라짐을 유발하고 탄력을 잃은 피부는 쉽게 주름이 생겨 노화가 촉진된다. 아무리 수분 크림을 듬뿍 발라도 메이크업을 두껍게 하거나 건조한 제품을 사용하면 갈라지고 뜨기 마련이다. 가을철 피부 표면뿐 아니라 속부터 차오르는 수분감으로 촉촉한 피부를 연출해 주는 것이 키 포인트. 촉촉하고 부드럽게 발리는 텍스처와 함께 스킨케어 기능을 동시에 해주는 제품들의 변신이 주목되고 있다.

Balm



산뜻한 변신 백백함은 잊어라

수분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듯 백백하고 딱딱한 느낌의 밤(Balm)이 변했다. 수분 가득 워셔블 텍스처를 밤이라 할 수 있을까? 최근에 나온 밤 제형 화장품을 보면 되직하지 않고 약간 쫄쫄하면서도 적당히 가벼워 여러 번 덧바르기도 좋다. 연고 같은 묵직함을 내세웠던 밤(BALM) 화장품, 롤링하면 오일로 변하여 원스텝 딥 클렌징, 스킨케어, 결 케어, 마사지 아로마 테라피 까지 가능하여 에스테틱을 받은 듯 탄력 있고 생기 있는 본연의 피부로 가꿔준다니, 밤의 산뜻한 변신이 반갑다.

1. 붉은빛 '금진 온천수'의 풍부한 미네랄이 담겨 온천욕을 한 듯 윤기 있는 피부로 가꿔주는 멀티 클렌저, 크레모랩 티아엔 크레모® 오 페르말 클렌징 밤
2. 천연 유래 미네랄 파우더인 칼라민 성분이 함유돼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제품, 리얼 베리어 시카 릴리프 젤 밤 3. 피부 나이를 되돌려주는 토털 안티에이징 세럼, 빌리프 유스 크리에이터 에이지 너다운 밤 4. 고영양 에센스의 촉촉함과 피부 결점을 커버해주는 밤 타입 팩트, 불리블리 캐비어 마블 팩트
5. 미국 원주인의 힐링 구루 레시피로 만든 식물성 오가닉 오일 고평축 멀티 밤인 '오가닉 매직 밤'의 업그레이드 버전, 닥터 브로너스 오가닉 코코넛 밤
6. 롤링 마사지를 통해 오일로 트랜스포밍 돼 촉촉하고 맑은 딥 클렌저, 에이지 투웨니스 클리어 에센스 클렌징 프레쉬 밤 7. 울긋불긋한 피부를 완벽하게 가려주는 무결점 비비크림, 이지할 라이프 리커버리 밤
8. 수분크림+모닝 팩+프라이머+광크림까지 4 in 1 기능을 한 번에 담아 빠르게 글로우 피부 바탕을 만들어주는 제품, 미샤 글로우 스킨 밤



Exfoliating



부드럽고 매끈하게 각질 없이, 수분 찰랑

피부 표면의 각질을 정기적으로 올바르게 제거하면 피부 장벽을 건강하게 가꾸고 외부 환경이나 노화현상으로 떨어진 턴오버 주기를 촉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각질제거제는 자극을 최소화하고, 부드럽게 묵은 각질을 제거하는 본연의 기능뿐 아니라 피부에 수분까지 충전시켜 스킨케어, 메이크업 케어 단계까지 이어지도록 촉촉함을 유지시켜주는 제품을 고르는 것이 관건이다. 성분 자체에서 파파야와 파인애플 등 천연효소 성분으로 부드럽게 묵은 각질을 연화하고 천연 유래의 셀룰로오스 성분 등을 활용하여 이중 필링 효과를 발휘하는 동시에 속 당김 없이 매끈하게 피부 결을 케어해 주는 제품 들에 눈길이 간다.

1. 베리류 성분이 들어있어 피부를 생기 있게, 톤을 밝혀주는 각질 모공관리 제품, 쏘내추럴 레드 필링 세럼
2. 유·수분 밸런스를 잡고 피부 톤을 맑게 해주는 필링 크림, 라벨영 쇼킹뿔사과 필링크림
3. 물을 묻히면 거품이 생기는 포켓 패드, 클렌징과 각질 제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메디힐 필로소프트 버블레이저 패드
4. 피부 각질과 노폐물을 닦아내고 산뜻한 수분감을 전달해 주는 저자극 소프트 필링 토너 패드, 더샘 다마 필링 토너 패드
5. 자연 향균 물질인 피톤치드가 다량 함유돼 피부 보호와 트러블 예방에 도움을 준다. 베니즈와 피톤치드 필링 젤
6. 필링 후에도 수분을 머금듯 당김 없이 촉촉한 피부결로 가꿔주는 이중 필링제, 리얼베리어 아쿠아 수딩 필링 젤
7. 부드럽게 각질을 관리하고 피부 톤업, 수분 충전까지 선사해주는 필링제, 아모레퍼시픽 트리트먼트 엔자임 필링 마스크



CICA



피부 재생 성분 화장품과 만났다

'시카'는 프랑스어 시카트리스(Cicatrice:상처, 흉터)에서 유래한 말로 시카 화장품은 손상된 피부 재생 화장품을 의미한다. 그중에서도 상처나 흉터 치료용 의약품에 주로 사용되던 센텔라 성분이 화장품 주 성분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센텔라 아시아티카(Centella Asiatica)'는 동양 의학에서 식용, 약용으로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있는 성분으로, '호랑이 풀', '병풀'이라고도 부른다. 호랑이가 싸우다 다치면 이 풀이 무성한 곳에 등을 대고 굴러 상처를 치료했다 하여 붙여졌다. 이 식물은 피부 상처 부위를 유해 물질로부터 보호하고 빠르게 회복시키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마데카소사이드도 센텔라 아시아티카에서 추출한 성분이다. 최근에는 여기에 발효 유산균, 칼라민 등의 다양한 효능 성분을 접목하여 화장품 선택이 더욱 즐거워진다.

1. 부드러운 크림 안에 캐모마일에서 추출한 아줄렌 성분의 캡슐이 피부를 진정시키고 수분을 채운다. 바이에콤 퓨어 카밍 시카 크림 2. 피부 진정, 건조 손상케어, 피부 장벽 강화에 좋은 피부 집중 개선 크림. 아이오페 더마 리페어 시카 크림
3. 마데카소사이드와 발효 유산균을 결합한 성분이 피부를 진정시키는 젤 타입 크림. 메이크프렘 시카프로™ 리프레쉬 라이트 크림 4. 약산성 pH로 촉촉하고 건강한 피부 상태를 유지시켜 주는 크림. 잇초스킨 타이거 시카 카밍 5. 마데카소사이드가 함유돼 손상된 피부를 2배 더 빠르게 개선시켜준다. 키엘 더마톨로지스트 솔루션즈 시카 크림 6 가려움, 건조, 각질 등 다양한 피부 고민에 도움을 주는 시카 스틱. 맥스클릭닉 에코글렘 시카 큐어 스틱 7. 손상된 피부를 개선하고 피부를 진정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크림. 프리메라 리페어비 시카 라인



Beauty Dvice



IT × 헬스뷰티 홈케어 족 '두 마리 토끼 잡기'

최근 건강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플라즈마 뷰티 디바이스가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다. 플라즈마란 기체, 액체, 고체 이외의 이온화된 기체 상태로 뷰티 디바이스에 적용돼 수분 흡수와 유지, 피부 탄력, 피부결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플라즈마 뷰티 디바이스는 집에서 쉽고 간단하게 전문가의 손길 못지않은 건강함까지 얻을 수 있기에 뷰티 홈케어족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기가 높은 플라즈마 뷰티 디바이스는 헤어 드라이어에서부터 두피관리기, 피부관리기까지 종류가 다양해지는 추세다.

1. 두피에 묵은 각질 제거와 두피 에너지를 활성화해 모발 성장 촉진에 도움을 주는 신개념 두피 전용 홈케어 디바이스. 프로스테믹스 리클리피엘 2. 모발 정전기를 감소시켜 공기 중의 미세먼지 흡착을 방지해주는 프리미엄 헤어드라이어, 유닉스전자 에어샷 플라즈마 시스템 3. 플라즈마를 통해 만든 이온을 피부 모공보다 미세한 크기로 방출해 피부에 에너지를 직접 전달하는 스킨케어 디바이스. 플라베네



Moist Light & White by CreamSkin

귀차니즘도 반하는 초간편 보습 관리의 비결

굳이 귀차니즘이 아니더라도 스킨과 크림을 따로따로 챙기고 발라주는 일은 번거로운 일이다. 그러나 피부가 건조하고 예민해지는 초겨울 피부는 더 많은 흡수력과 보습력을 요구하게 된다. 그러나 사실, 피부에 이것저것을 많이 바르는 것 자체가 피부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 뭔가 산뜻하고 촉촉한 Something New는 없을까?

Demand

얼굴은 푸석푸석하고, 시간은 없고, 빠른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스킨케어하는 방법은?

Solution

크림 스킨은 한 번의 사용으로도 촉촉하지만 끈적임 없는 케어가 가능해요. 피부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2~3회 레이어링 하여 사용하거나, 메이크업 전 화장솜에 크림 스킨을 듬뿍 적셔 2분 정도 엮어두면 뛰어난 보습 피부를 연출할 수 있어요.



크림,
스킨에 빠지다



●라네즈 크림 스킨 [150ml / 28,000원]

Laneige Cream Skin NEW

라네즈 크림 스킨

스킨의 흡수력과 크림의 보습력을 온전히 담아 스킨케어 첫 단계부터 꼭 채워주는 그런 상상이 현실로 다가왔다. 새롭게 출시된 라네즈 '크림 스킨'은 크림을 스킨에 그대로 녹여내어 스킨만으로도 크림을 바른 듯 깊은 보습을 채워주는 스킨이다. 글로벌 프리미엄 브랜드 라네즈가 최근 출시한 크림 스킨은 한통의 크림 그대로를 스킨에 담아 깊은 보습을 채워준다.

라네즈 크림 스킨은, 아미노산이 풍부한 화이트 리프 티 워터를 함유해 거칠어진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건강한 윤기를 형성해준다. 화이트 리프 티 워터는 아모레퍼시픽만의 특화된 극차광 재배법과 물을 한 방울씩 느리게 떨어뜨리는 더치 추출 공법으로 추출하여 일반 녹차보다 아미노산이 훨씬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크림 한 통을 스킨에 그대로 녹여내어 첫 단계부터 촉촉하게 채워주는 고보습 스킨

Cream Blending Technology™로 크림을 스킨에 그대로 녹여내어 스킨만으로도 크림을 바른 듯 피부를 촉촉하게 가꿔주는 크림스킨. 아미노산이 풍부한 화이트 리프 티 워터를 함유해 거칠어진 피부 장벽을 강화해 준다. 보습에 꼭 필요한 성분을 담은 마일드 처방으로 건조로 인한 민감 피부를 건강하게 가꿔준다.

크림 블렌딩 기술 (Cream Blending Technology™)

스킨처럼 산뜻하고 흡수력은 뛰어나지만 크림의 보습력은 온전히 담아 스킨케어 첫 단계부터 꼭 채워지는 피부 경험을 선사한다.



화이트 리프 티 워터

아모레퍼시픽만의 특화된 극차광 재배법과 물을 한 방울씩 느리게 떨어뜨리는 더치 추출 공법으로 추출하여 일반 녹차보다 아미노산이 훨씬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보습 필수 성분 마일드 처방

PEG 계면활성제, 합성 색소, 향료, 동물성 원료, 트리에탄올아민을 첨가하지 않고, 보습에 꼭 필요한 성분을 담은 마일드한 처방으로 건조로 인한 민감 피부를 건강하게 가꿔준다.

All about Pore Care

굴욕 없는 민낯 퍼펙트 케어를 위한 Q&A

피부 트러블의 대표적인 모공은 대체로 잘못된 클렌징과 세안, 팩, 면봉 사용 등에서 잘못된 케어 탓도 있지만, 나이를 들면서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는데서 시작된다. 스킨케어에 좋은 미용 성분과 화장품, 관리 방법 등에서 보다 섬세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견잡을 수 없이 확대되어가는 모공. 확실한 모공 케어 방법은 과연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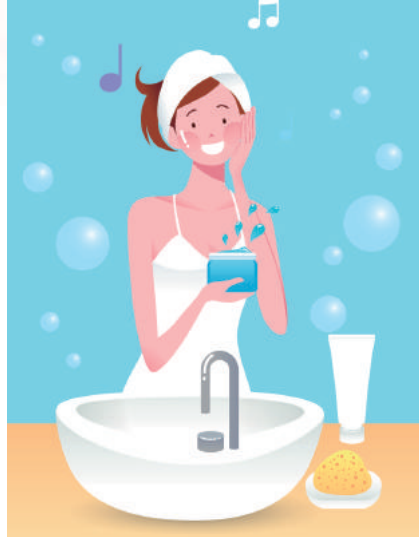
울퉁불퉁 모공 피부
절대 치유 불가!
과연 그럴까?

피부가 깨끗하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는다. 특히 얼굴에 블랙헤드나 화이트헤드가 끼어 있으면 모공의 탄력을 잃는 것은 물론, 모공이 벌어지는 방향에 따라서 주름이 생기기도 하고, 전체적인 피부의 색도 칙칙해진다. 한번 생기면 대책이 안 서는 모공, 우울함의 주범이다.

Q1

어릴 때부터 여드름 이것저것 해보지만
효과는 없고요, 지금은 붉은 여드름은
사라졌지만, 모공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A 거울을 볼 때 모공이 열려있는 피부
는 의외로 피부가 건조한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고 피부의 장벽 기능을 잘못 올려
주면 피지가 과잉 분비되기 십상이죠. 어릴
때 여드름이 생기는 원인은 호르몬의 밸런
스가 잘 맞지 않을 경우예요. 그냥 두면 과잉
분비된 피지가 외부 노폐물과 결합해 덩어리
를 만들어내고 그 노폐물이 모공을 막거나
점차 늘어져서 모공을 확대시켜 버리죠. 일
단, 여드름성 피부를 고치는 것이 중요하데,
불규칙한 식생활부터 개선해 보세요. 피지
분비를 촉진하는 기름기 많은 음식, 동물성
지방 제품, 케이크 등 달콤한 음식, 자극 있
는 음식 등은 피하는 것이 좋아요. 피지 분비
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은 비타민 B2·비타민
B6를 적극적으로 섭취해 피부 안쪽로부터
피지 컨트롤 해주세요.



Q2

모공을 줄여주는 데는 수렴
화장수가 좋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일반 화장수와
무엇이 다른가요?

A 일반적인 화장수는 피부를 부드럽게 하고 윤
기를 주는 반면, 수렴 화장수는 피지 분비를
컨트롤하고 모공과 피부를 조여주는 성분이 있어
요. 여드름성 피부나, 피부가 유분으로 번들거리는
사람, 각질이나 각진, 블랙헤드를 예방하고 피부를
정돈해주는 기능으로 알려져 있죠. 지방성 피부나
모공 케어에 주로 사용되지만, 건조한 피부나 민감
성 피부 등은 사용 전에 반드시 테스트를 해주세요.
피부가 건조한 사람은 알코올 프리의 수렴 화장수
를 권해요. 알코올이 증발할 때 피부의 수분도 같이
증발시켜 건조한 피부는 주의해서 사용하세요.

Q3

항상 세안에 신경을 쓰는
편인데, 뺨이나 코부분에 항상
블랙헤드가 없어지질 않아요.
세안 외에 다른 방법이 있나요?

A 블랙헤드는 피지와 노폐물
이 뒤섞이고 각질로 인해
모공이 막히고 색소가 변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예요. 이미 생긴
피지는 매일 깔끔하게 클렌징과
세안을 해도 약 5일 정도면 다시
블랙헤드로 올라와요. 그렇다고
블랙헤드를 손톱이나 쪽집게 등
으로 무리하게 빼내려는 것은 금
물이에요. 무리하게 피지를 없애
면 피부가 손상돼 모공이 더욱 확
대 되거든요. 특히, 콧방울 등에
달기처럼 보이는 거무튀튀한 블랙
헤드는 피지에 노폐물이 뒤섞이면
서 생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지
컨트롤을 해주는 것이 최우선의
방법이에요. 특히 기온이 높으면
피지 분비가 늘어나니까, 피부를
항상 깨끗하게 케어해 주세요.

Q4

모공 파우더나 모공
파운데이션이 과연, 모공을
완벽하게 감출 수 있을까요?

A 모공을 파운데이션 등으로 감추려고 할수록 두
드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모공이 심한 피부는
메이크업 전에 스킨케어 단계와 베이스 메이크업, 화
장 순서 등에 따라서 화장을 안 하느니만 못한 경우가
더 많아요. 화장으로 감추려는 것보다는 일단 피부를
깨끗하게 하여 모공을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스킨
케어에 집중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예요. 메이크업
을 할 때에는 깨끗하게 세안을 하고 나서 스킨을 바르
거나 로션 팩을 하고 나서 피부를 확실하게 안정시켜
준후 살짝 펄감이 있는 베이스 메이크업을 해주세요.
모공을 파운데이션 등으로 완벽하게 감추려는 메이크
업을 하면, 더욱 모공이 두드러져 보이므로 주의하고,
빛의 반사를 잘 활용해서 피부가 매끄럽게 보이는 제
품을 사용하면 효과가 있어요.

Q5

지성피부입니다. 모공이
넓고 칙칙함은 덤이죠.
항상 세안에 신경을 쓰는
편인데, 요즘 번들거리
면서도 얼굴이 뜨거워요.

A 지성피부는 하루 종일 피지의 분비가 많고,
메이크업을 하면 번들거려서 금방 지워지기도
하죠. 피지의 과잉 분비로 모공이 열려있으면, 거
기에 노폐물이 들어가 산화해서 얼굴도 금방 칙칙
해지죠. 그렇다고 피지제거를 하려고 세안을 많이
하거나 모공 팩 등으로 피부를 괴롭히는 일은 하지
마세요. 수분과 유분의 밸런스를 지켜주는 스킨케
어가 가장 중요하답니다. 특히 오일 클렌징은 세정
력이 강한 한편, 필요한 피지까지 제거해 버리는 경
우가 있어요. 스티머로 모공을 열고, 밀크 클렌징을
사용해서 메이크업을 지워주는 것이 좋아요. 세안
후에는 곧바로 보습을 해주세요.

Q6

세안 후에도 스팀 타월 등을 활용해서 다시 닦아 내지 않으면 비누기 등이 남아 있는 듯해서 짹짹해요.

A 클렌징에 대한 오해는 많아요. 너무 자주 해도 좋지 않고, 안 해도 문제고. 결과적으로 과유불급이죠. 일상생활에서 습관적으로 과한 세안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지나친 세정은 피부를 알칼리성으로 변화시켜 자극을 주고 피부 수분 함량을 떨어뜨리기도 해요. 건강한 피부는 빠르게 정상 PH 상태로 돌아오지만 건조하거나 민감한 피부는 피부 장벽 기능에 쉽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습관적인 세안 과다는 지양하는 것이 좋아요. 또한 진피의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게 되죠. 이렇게 콜라겐과 히알루산 등의 성분이 떨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모공이 확대되고 늘어지게 되니까 주의하세요.

Q8

피부는 여드름성 피부인데, 화장을 안 하면 울긋불긋해서 외출을 할 수가 없어요. 딥 클렌징으로 세안하고 싶는데 어떻게 하면 피부일까요?

A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인트 메이크업 리무버부터 클렌징 오일, 폼클렌징 등으로 순차적인 세안을 하고 뽀득거리는 느낌이 날 때까지 행구는 것을 딥 클렌징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너무 씻는 것에만 집중하면 피부가 필요로 하는 부분까지 제거해서 피부는 더욱 메마르고 약해져요. 따라서 여드름성 피부는 화장을 자제하는 것이 가장 좋고, 화장을 했다 해도 지울 때는 멀티 클렌저 등을 사용해서 클렌징 단계를 축소하고 3분 이내에 노폐물만 빠르게 제거하는 것이 중요해요. 많이 문지를수록 모공 속으로 메이크업 찌꺼기를 밀어 넣는 작용을 하게 되므로 주의하세요.



Q9

매일 클렌징하고 스킨 케어를 하는데, 모공이 더욱 커진 것 같아요.

A 칙칙해진 모공은 피지의 과잉분비로 피지가 엉켜있는 것과 모공 자체가 더러워진 상태, 각전에 의한 것 등이 원인이죠. 매일 세안과 클렌징, 스킨케어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모공이 칙칙하다면 솜털 등이 블랙헤드에 뭉쳐 있을 수 있어요. 이마 뺨 등에 나있는 솜털은 전기면도기 등을 사용하면 깨끗하게 처리되지만, 코 주변은 쉽지 않죠. 보통 솜털은 피부의 턴오버가 정상적이라면 저절로 떨어져 나가지만, 모공 깊숙이 분비되는 피지와 딱딱한 각질이 뒤섞여 생긴 각진 위로 솜털이 두껍게 덮여버리면 그 부분이 검게 보여요. 이런 각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깔끔한 클렌징과 보습, 자외선 방지, 턴오버를 촉진시키는 습관 등이 중요해요. 물론, 무리하게 얼굴을 문지르거나 과도한 필링은 NG고요.

Q10

여드름이 많았던 피부여서 자주 울긋불긋해지고, 땅김이 심해요.

A 가을에 건조한 공기와 에어컨, 잘못된 스킨케어 등으로 피부가 건조해지면, 피부 표면의 각질세포가 일어나기 쉽죠. 그러면 피부결이 흐트러지면서 모공이 더욱 눈에 띄게 되고요. 피부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피지의 분비를 늘리고, 모공은 더욱 숨을 쉴 수 없는 상태가 돼요. PH 5~6.5의 약산성을 유지하면 피부 표피층의 산성막이 유해한 균으로부터 피부를 지켜주고 피부 장벽을 건강하게 유지시켜 주기도 해요. 울긋불긋 문제성 피부, 즉 거기에 피부 땅김이 심하다면 피부와 유사한 약산성 클렌저를 사용해 보세요.

Q7

피부에 흠집 하나 없이 탱탱하게 빛나는 피부를 보면 부러워요. 지긋지긋한 여드름성 피부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A 피부에 아무 신경도 안 쓰고 탱탱하고 윤이난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물론, 유전적으로 피부에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것은 아주 드문 케이스고, 좋은 피부는 꾸준한 자기 관리로 얻을 수 있어요. 하루 8잔 이상의 물로 체내에 수분을 보충하고 각질과 노폐물을 정기적으로 잘 제거해주세요. 생활 속에서 비타민 C가 함유되어 있는 귤, 오렌지, 딸기, 양배추 토마토 등의 생식도 효과 있고요. 비타민 A, B, E 등을 섭취해주면 피부에 참 좋아요. 강한 미백 효과를 지닌 오이와 레몬을 즙으로 만들어 팩을 하면 얼룩덜룩한 피부색이 열리는 효과도 얻을 수 있어요. 단 화이트닝 제품이나, 화이트닝에 좋은 제품들은 피부에 자극을 주기 쉬우므로 민감성 피부는 피부 테스트를 한 후에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모공, 내 얼굴의 '싱크홀'
자신감 회복을 위한

Recover Project

무리하게 짜거나 문지르면 오히려 피부에 부담을 주게 되어 대책이
서지 않게 된다는데, 모공... 내 얼굴의 싱크홀, 어쩌면 좋을까?

잘못된 모공 케어 상식

1 세안을 할 때마다 '뽀도독' 소리나게
씻어내지 않으면 개운하지 않다. (x)

과격한 세안은 피부 속에 있는 수분까지 날려버리거나 건조하게 만들 수 있다. 건조해진 피부는 오히려 피지 분비를 활발하게 한다.

2 각질을 벗겨내는 필링을 자주 한다. (x)

필요한 각질까지 벗겨내면 피부가 거칠어지고 턱오버가 따라가지 못해 민감성 피부가 되기 쉽다. 피부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과잉 피지를 분비한다.

3 강력한 모공 팩으로 확실하게 블랙헤드를
없앤다. (x)

시원하긴 하지만 자주 하면 피부에 부담을 주게 되고 손상되거나 벌어진 모공이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4 번들 거리는 것이 싫어 크림이나 보습제도
바르지 않는다. (x)

피부에 적절한 피지는 필요한 것. 거의 대부분의 모공 트러블은 지성이면서 건조한 피부가 원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5 블랙헤드든 화이트헤드든 보이는 대로
짜낸다 (x)

블랙헤드가 신경이 쓰인다고 손톱이나 면봉에 오일 등을 묻혀 뽑아내는 작업을 하면 주변에 있는 피부 세포와 모세혈관이 자극을 받는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모공에 좋은 음식

- ◆비타민 A 군(신진대사 촉진)
당근, 시금치, 호박 등
- ◆비타민 B군 (피지 밸런스)
간, 장어, 아몬드 대두 등.
- ◆단백질 (콜라겐 형성)
붉은 고기, 닭고기, 계란 흰자, 낫도.
- ◆비타민, 폴리페놀(항산화 작용)
토마토, 아보카도, 바나나, 대두 제품 등

모공에 대한 고민은 갖가지다. 증상마다 원인과 케어 방법도 다르다. 일단 한번 생기면 평생 골치 아프게 되는 모공 트러블의 단계와 잘못된 케어 방식은?

1 STEP | 블랙헤드

여드름성 피부라면 가장 많이 고민하고 있는 현상. 모공을 꽉 막고 있는 피지 덩어리로 인해 메이크업이 지저분해지는 것은 물론, 방치해 두면 케어 후에도 모공이 조여지지 않는다.

2 STEP | 탄력 저하

블랙헤드나 화이트헤드로 모공이 막혀있지 않아도 굵껍질처럼 변한 상태. 말한다. 빵에서 잘 보이는 타원형, 물방울형으로 늘어진 모공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더욱 눈에 띈다.

3 STEP | 모공 변색

방치된 블랙헤드가 점차 산화해서 검게 변한 상태. 세안만으로는 절대 지워지지 않는다. 만지면 오톨오톨하다.

4 STEP | 색소침착

모공이 칙칙하지만 도톰도톨하지 않고 피부색이 얼룩덜룩하다. 모공을 깨끗하게 청소해도 색소침착이 되면 효과는 없고, 개선에 시간이 걸린다.

5 STEP | 피부결 변화

단순히 모공이 벌어져 있는 것만이 아니라, 울퉁불퉁해서 마치 화산처럼 되어 있다. 짜거나 누르거나 하는 등의 여드름 케어로 진피 층이 손상된 상태.



Last Choice of Pore Care ATHOS LASER TREATMENT



유튜브에서 난리 난
'아토스 레이저'에 대한 모든 것
인생 노답 '모공 트러블'에 도전한다

불과 얼마 전까지 이미 울퉁불퉁하게 변해버린 '화산 모공'은 치유 불가라는 것이 정설이었다.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바르고 케어를 해도 피부의 원천적인 문제까지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유튜브를 통해 모공 축소 레이저에 대한 효능과 비교 영상이 소개되면서 각종 모공 트러블로 고민하는 모공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 유튜브를 뜨겁게 달군 검색어 '아토스레이저 시술'에 대해 취재했다.

“ 표피, 진피, 피하지방 층으로 구성된 피부. 그중에 표피층이 바로 피부장벽! 피부장벽이 단단해야 피부가 건강하다. ”

피부장벽이 왜 중요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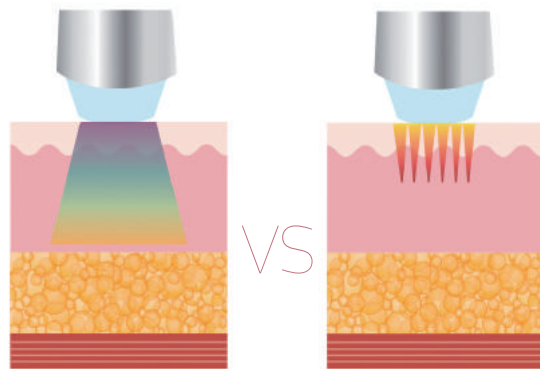
여드름이 자주 나고 끊임없이 모공으로 부터 분비되는 피지 때문에 그야말로 '인생노답' 인 모공 피부. 나이가 들면서 그 모공을 따라 잔주름까지 생겨나면 그야말로 속수무책이다. 화장품 만으로 안될 때,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레이저 시술. 그 레이저 시술에도 선택의 기준은 많다. 피부 스스로 탄력을 회복하고, 피부 장벽을 지켜주며 모공축소가 되는 현대 과학의 힘!

EDITOR'S COMMENT



포어케어
최종선택은 시술!

피부 장벽을 지키는 모공축소레이저
아토스와 프락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아토스

RF 고주파 레이저로 표피층에 어떠한 자극도 없이 진피층에 바로 열 자극을 주어 콜라겐 재생을 유도하는 시술.

프락셀

피부 표피부터 진피층을 태워, 피부 재생을 유도한다. 이 과정에서 피부 장벽에 손상을 받아 피부가 예민해지고 흉조가 발생 할 가능성이 크다.

강현영 원장과
풀어보는

유투버들의 폭풍클릭 검색어 '모공축소 레이저' 리얼비교 실험 후기

20대 프락셀 레이저 VS 30대 아토스 레이저

최근 피부과 전문의 강현영 유스피부과 원장이 실제 모공 피부로 고민하는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모공케어에 대해 설명하는 영상이 유투브에서 화제를 모았다. 강원장이 소개하는 최신 모공케어 레이저의 비교와 그 장단점에 대한 리얼어드바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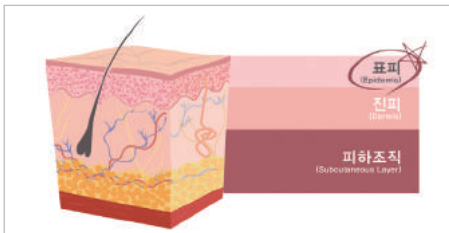


1. 20대랑 30대랑 모공 레이저가 달라야 한대? 왜?

25세 이후로 여자의 피부는 급격히 노화가 시작되는데요. 노화된 피부는 젊은 피부에 각질층이 잘 생성되지 않아서 피부 장벽 기능이 급격히 떨어져요. 레이저 후에 피부가 더 건조해지고 안 좋아졌다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연령대나 피부 조직에 맞는 모공 레이저 선택을 잘 못해서 그런 경우가 많지요.

2. 30대인데, 각질층이 얇아지고 피부가 자주 건조해져요

피부 장벽은 피부의 가장 바깥쪽, 즉 표피에 있는 각질층으로 피부 최초의 방어막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피부 장벽 기능이 약해서 각질층이 얇아지고, 수분이 쉽게 날라가면서, 피부가 점점 예민해지게 되고 피부 노화에 가속도가 붙거든요. 즉, 20대에 비해 30대는 피부 장벽 기능이 원활하지 않고, 따라서 30대 이후의 피부는 레이저 시술을 해도, 피부 장벽을 크게 손상시키지 않는 레이저를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3. 모공시술을 하고 싶는데, 프락셀과 아토스 레이저의 차이점이 뭔가요?

●피부 표면을 뚫는 프락셀

예를들어 프락셀 레이저는 피부 표면부터 상처를 내서 모공을 깎아내는 박피 방식을 사용하고 있구요.

●아토스 레이저

아토스 레이저는 표피층에 자극없이 진피층으로 바로 열자극을 줘서, 진피부터 피부속을 차오르게 해서 피부 모공을 해결하는 방법을 사용해요. 즉, 모공을 밖에 서부터 깎을 것이냐 안에서부터 채울 것이냐? 하는 방법의 차이죠. 실제로 시술을 비교해 보면, 프락셀 레이저를 시술한 쪽보다 아토스레이저 시술한 쪽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피부장벽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실험사례 사례자의 원래 피부 장벽 지수 = 12 (0으로 갈수록 피부 장벽이 건강하다)

피부 장벽 지수 실험

프락셀, 아토스 레이저 후 피부 장벽 지수 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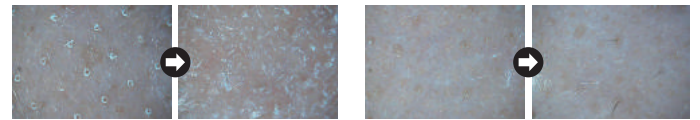


⇒ 아토스 레이저
아토스 레이저를 시술한 쪽 = 10

⇒ 프락셀 레이저
프락셀 레이저를 시술한 쪽 = 18

현미경 100배율 렌즈를 이용한 피부 표면 비교

레이저 시술 직후, 프락셀은 표피부터 구멍이 뚫려 나 있지만, 아토스 레이저의 표면은 차분하다. 지금 진피 속에서는 콜라겐들이 막 생성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상태다.



5일 후 표피 활영 각질 반응 프락셀

상대적으로 매끈한 아토스 레이저

프락셀의 경우 표피에 상처를 냈기 때문에 각질 반응이 심하게 일어납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자외선 차단과 보습에 신경을 써주셔야 해요.

●아토스 레이저가 모공 개선에 효과가 있을까? 부작용은?



아토스레이저는 모공과 피부 결 개선 뿐 아니라, 피부 속 진피 층의 콜라겐을 복원시키켜 시간이 지날수록 피부가 좀 더 쫀쫀해지고 탄력이 생기는 느낌이 들죠. 별도의 회복 기간이 필요하지 않아 매일 카메라 앞에서야 하는 방송인들이나 연예인들이 많이 선호하는 시술이죠. 가벼운 피부 톤업 효과도 있구요. 단, 피부 진피층을 자극해 속부터 차오르기 때문에 모공이 좁아져서 모공 사이에 있던 피지가 일시적으로 올라와 뽀루지 같은 트러블이 있을 수 있어요. 진피층의 모공이 좁아졌다는 증거니까 당황하지 마세요. 3일 정도 후면 사라집니다.



DOCTOR'S TIP

프락셀의 경우는 어떤 사람들이 사용하면 좋을까요?

프락셀은 피부 재생 능력이 뛰어난 20대와 볼 모공에 비해 단단한 각질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코부분의 모공을 개선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추천할 수 있어요.

VEGAN!

BEYOND ORGANIC!

비건, 진화된 뷰티라이프를 말한다

방사능 유출이나 자연환경 파괴 등으로 인해 인류의 미래까지 우려하는 사람들의 의식변화가 사람들의 미의식까지 바꾸고 있다. 에코 로하스 오가닉 등이 좋다는 것은 알지만, 한꺼번에 실천하기는 어려운 면도 많다. 자연과 공존하는 아름다움이라는 적극적인 삶에 대한 철학과 함께 안전성까지 요구되는 요즘, 항상 타인과는 다른 자신, 규격화되지 않은 자신 속에서 원료나 성분에 있어서는 절대 인공이 가미되지 않은 천연 아이템을 찾는 완전한 비건(Vegan, 채식주의자)들이 왔다!



비건(vegan)

다양한 이유로 동물성 제품을 섭취하지 않는 식습관 및 그러한 철학에 동의해 실행으로 옮기는 사람을 뜻한다. 식습관에 그치지 않고 가죽제품, 양모, 오리털, 동물 화학 실험을 하는 제품 등 동물성 제품 사용까지 기피하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를 포함한다. 1944년, 'beginning'과 'vegetarian'을 결합해 'vegan'이라는 용어가 탄생했다.

“ 변화의 시대다. 자연친화적인 삶과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이 사람들의 생활 패턴을 바꾸어 놓고 있다. 모든 이슈가 '무공해'와 '자연'이라는 말만큼 환경이 중시되고, 오염 없는 생활 속에 합류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의해 사람들의 미의 관점도 달라지고 있다. 패션업계에서는 동물의 가죽을 벗겨내고 뜯어내면서까지 모피를 입히지 않겠다는 브랜드들이 인조 모피 등으로 옷과 가방을 제작하는 등, 의식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

시작된 비건 라이프 사람·지구·환경이 함께 하는 세상 만들기

비건주의가 음식뿐 아니라 뷰티·패션 등 라이프스타일 전반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할 때 동물실험이나 동물성 원료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동물을 대하는 브랜드의 철학을 살피게 되면서 많은 브랜드들이 비건을 위한 새로운 제품 라인을 출시하거나 동물보호 캠페인을 벌이는 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선 것. 멀게만 느껴졌던 '비건 라이프'의 진입장벽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동물성 식품의 섭취뿐 아니라 동물성 원료로 만든 제품도 사용하지 않는 비건(Vegan, 채식주의자)들은 우유와 달걀 등 낙농 제품은 섭취하는 채식주의자인 베지테리언과 구분된다. 더 나아가서 비건 제품의 제조 브랜드들 중에서는 유통망까지 개발도상국의 사람들에게 일터를 제공하고, 적절한 노동 임금을 지불하면서 상품을 구매하는 페어트레이드 방식을 취하는 등 결벽주의적 경영방식을 취하는 곳도 많다. 생활용품에서도 화학물질 논란 이후 성분을 꼼꼼히 따지는 소비 성향이 눈에 띄게 확산되고 있다. 생활화학제품을 꺼리는 사람들을 일컫는 일명 '케미포비아'와 제품 구매 전 전성분과 원재료 확인은 물론, 실제 제품 리뷰까지 꼼꼼히 검색한 뒤 제품 구매를 결정하는 소비자를 가리키는 이른바 '체크슈머'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소비 성향을 가진 소비자가 늘면서 '착한 성분 제품', '친환경 제품'에 대한 수요가 날로 급증하고 있으며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다. 비건은 모든 의식 즉, 그리고 사람들의 패션 & 뷰티 라이프 스타일을 구성하는 하나의 형태로서 주목되고 있다.

비건 제품 확인하기

#비건 패션 동물성 소재의 경우 생산 과정에서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강제하지 않았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제품 구매 시 태그에 적힌 소재에 주목한다. 예를 들어 모피(토끼, 라쿤, 밍크, 여우 등), 가죽(소, 송아지, 양, 악어, 뱀 등), 다운(오리, 거위 등), 스웨이드(소, 양 등), 울(양), 앙고라(산양) 캐시미어(산양)가 인간의 욕망에 의해 희생됐다.

#비건 뷰티 미국의 '비건 액션', 영국의 '비건 사이어터' 등 유명 채식주의의 정식 인증과 전 제품에 동물 실험을 하지 않았음을 뜻하는 '리핑 버니(leaping bunny)' 인증의 표시를 실시하고 있다. 소비자들에게 '착한 마음으로 아름답게 공존하며 살자'는 인식의 변화이자 진보된 미의식이 눈길을 끈다.





No Chemical, No, Animal!

매일 먹는 음식과 아무 생각 없이 소비되는 수많은 상품들. 기술이 진화되면 될수록 기계화와 환경오염 등에 거부 반응도 심화되고 있다. 방사능 유출이나 자연환경 파괴 등으로 인해 인류의 미래까지 우려하는 사람들의 의식변화가 사람들의 미의식까지 바꾸고 있다. 몸과 마음이 원하는 안전한 것들에 미의식을 부여하는 요즘 사람들의 속성 때문이다. 예코 로하스 오가닉 등이 좋다는 것은 알지만, 한 꺼번에 실천하기는 어려운 면도 많다. 그러나 자연과 공존하는 아름다움이라는 적극적인 삶에 대한 철학과 함께 안전성까지 강력히 요구되는 시점이라 보다 자연에 가까운 친환경적 원료를 채용한 제품들이 전성기를 맞고 있다.

이른바 먹는 것은 물론 얼굴과 몸에 바르는 원료 단계에서부터 제품을 담는 용기까지 인간과 자연에 친화적인 제품을 요구하는 시대. 잘 녹는 PT재질로 되어 있는 용기나 케이스의 선택은 물론, 아예 생산단계에서부터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다는 그야말로 뉘속부터 친환경 브랜드임을 선언하는 곳이 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 전 세계 화장품 업계에서 비건 화장품의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러쉬, 더 바디샵, 닥터 브로너스 등에서는 이미 비건 인증과 동물실험 금지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다. 영국 자연주의 코스메틱 브랜드 러쉬의 경우 동물실험을 하지 않으며 생산 제품의 80%가 비건 아이템이다. 매년 동물대체실험 연구에 이바지한 개인과 단체에 기금 기부하는 '러

시 프라이즈'를 주최하고 있기도 하다.

닥터 브로너스의 경우, 사람과 동물, 지구 환경의 공존을 추구하는 브랜드 철학 '올-원(ALL-ONE)'에 따라 사육동물복지와 멸종위기 동물 보호를 위한 활동에도 앞장서는 브랜드로, 공식식 축산으로 고통받는 동물들의 구조와 멸종 위기 동물 보호를 위해 매년 수익 일부를 동물보호 단체에 기부하고 있다.

무조건적으로 비건을 강요하기보다는, 일주일에 한 번 식탁에서 고기를 멀리해보자는 취지의 '고기 없는 월요일(Meatless Monday)' 캠페인을 펼치는 등 보다 많은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쉽게 비건에 동참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기도 하다. 전 제품에 동물실험을 하지 않고, 윤리적으로 얻은 비즈왁스를 사용한 밤 제품 외에는 동물성 원료를 일절 사용하지 않는다는 기업 방침이 미국의 비건 액션(Vegan Action), 영국의 비건 소사이어티(The Vegan Society) 같은 채식 관련 비영리 단체의 정식 인증을 받기도 했다.

또한, 배우 제시카 알바가 애용해 유명해진 비건 화장품 업체 '아워글라스' 역시 오는 2020년까지 모든 제품을 100% 비건으로 내놓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니스프리'도 환경 쓰레기도 줄이면서 식물성 원료로 비건 화장품을 만들어 보자는 아이디어의 결과물로, 버려지는 커피 찌꺼기에서 커피 오일을 추출한 비건 화장품을 선보였다.

1. 피부의 수분장벽 강화를 도와주어 피부손상을 사전에 막아주는 히든랩
2. 자연 유래 원재료인 카모마일 추출물과 인공색소, 미네랄오일, PEG(합성계면활성제)를 첨가하지 않은 피부 친화적인 카밀 핸드크림.
3. 신세계인터내셔널이 국내 판권을 확보한 미국 메이크업 브랜드 아워글라스
4. 화장품 브랜드 러쉬는 2012년부터 동물대체 시험 활성화를 위한 시상식 '러쉬 프라이즈'를 개최하고 있다.
5. 반려견 마라톤 '명량현에서 더바디샵이 진행한 동물실험 금지 서명 운동 부스
6. CGMP우수화장품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인증을 받은 코스맥스의 색조화장품 생산라인





Fur is Over

멸절된 생명체의 윤기 있는 털을 탐하여,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들의 가족을 강제로 뜯어내고 가공하여 화려함의 극치를 즐기는 인간의 야만성에 대한 반성도 본격화되고 있다. 단지 인간의 멋을 위해 잔인하게 희생되는 동물들에 대한 죄의식과 책임감이 투영된 소비 흐름이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고급만을 추구하던 럭셔리 브랜드들 역시 비건 패션에 동참, '페이크 퍼(Fake fur, 인조 모피)'로 교체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SPA 브랜드의 페이크 퍼는 보다 도전적인 디자인의 색감과 패턴으로 눈길을 끄는데, 자라의 페이크 퍼 코트나 H&M의 페이크 퍼 베스트, 페이크 레더 재킷은 겨울철 높은 활용도를 자랑한다. 노스페이스, 라푸마, 밀레 등의 아웃도어 브랜드들 역시 윤리적인 방식으로 털을 채취했음을 뜻하는 RDS(Responsible Down Standard, 책임 있는 다운 기준) 인증 롱 패딩을 판매하며 비건 패션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7. 식물 유래 천연 감미제를 사용하여 입술에 자극이 전혀 없는 니코피 립 틴트 3종
- 8. 세계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화학물질인 '옥시벤존 옥타녹세이트' 제로 선언에 참여한 라이크아임파이브
- 9. 전 성분의 95% 이상이 미국 농무부(USDA) 인증 유기농 원료로 만들어진 닥터브로너스 베이비 마일드 오가닉 립밤

Plus Vegan



패션도 그린 업스타일(Green-up Style)

패션계에서는 석면파동이후 에코패션이 화두로 떠오르며 많은 브랜드에서는 화학제품이 아닌 오가닉 코튼 등 자연소재로 만든 패션에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가 흔히 마트에 가면 볼 수 있는 자연 야채, 과일과 같이 3년이상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밭에서 재배한 이 오가닉 패션이 전폭적으로 늘어난 것이 바로 그것. 요즘에는 지속가능한 패션과 디지털패션을 융합한 윤리적 패션의 가치로 그 자연주의에 대한 정신이 속속 접목되고 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 콘텐츠 진흥원이 주관하는 아시아 최대 패션문화마켓 '패션코드(Fashion KODE) 2019 S/S(이하 패션코드)'가 총 수주액 약 19억 원을 달성하며 성공적인 막을 내렸다. '그린업스타일(Green-up Style)'이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이번 시즌 패션코드는 세계적으로 주목 받고 있는 '지속가능한 패션'을 테마로 단순한 수주회를 넘어 패션문화를 선도하는 행사로 발돋움했다는 평을 받았다.

1. 지속가능을 컨셉으로 한 패션을 테마로 업사이클링 제품을 전시하여 화제를 모은 패션코드 2019 S/S.
2. 한국프로농구연맹 선수들이 모델로 활약한 패션코드 2019 S/S의 스페셜 콘셉트 패션쇼.





Beauty



에뛰드하우스 '시럽 빼고 테이크 아웃'

F/W 시즌의 트렌디한 핑크, 레드 브라운 MLBB 컬러를 반영한 컬렉션. 커피에서 영감을 받은 그윽한 브라운 계열의 컬러로 구성돼 누구나 손쉽게 트렌디한 데일리 메이크업을 연출할 수 있다. 아이섀도 팔레트 1개와 립스틱 4개, 블러셔 1개로 구성, 출시됐다.

아모레퍼시픽, 먹는 화장품 '큐브 미'

아모레퍼시픽이 이너 뷰티 브랜드로 피부 전문 건강 기능식품 브랜드 '큐브 미(CUBE ME)'를 론칭, 5가지 신제품을 출시한다. 큐브 미는 'CUBE Managed by Eating solution'란 뜻으로 피부의 입체적 구조에서 착안, 화장품 사용과 함께 섭취 시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먹는 화장품' 컨셉. 보습 화장품을 사용하며 추가관리가 필요할 때 섭취한다.

애경산업, 더마에스페(DERMA ESTHE)

애경산업의 뉴 더마 스킨케어 브랜드 '더마에스페'는 피부 과학을 뜻하는 더마(DERMA)와 전문가의 피부관리라는 에스테틱(AESTHETIC)의 결합으로 피부에 즉각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화장품이라는 의미이다. 더마에스페는 인공 거미독 성분과 인공 거미줄 단백질을 처방한 세럼, 크림 등 스킨케어 화장품. 보다 '강력하면서도 안전한' 더마 성분을 사용해 주름 취약 존을 집중 관리해준다.

FW Look



아크웰, 김세정 건강 피부

아크웰의 울가를 스킨케어 화보의 컨셉은 건강 피부! 김세정은 환한 미소와 함께 일명 '방패 크림'이라는 애칭의 초보습 크림으로 완성한 탄탄하고 생기 넘치는 피부 빛을 선보였다. 피부 보습 체력을 키워 F/W 시즌 건조한 외부 자극으로 인해 무너진 피부 장벽을 탄탄하게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습 아이템이다.



랑콤 '압솔뤼 드라마 마뜨'

글로벌 뷰티 브랜드 랑콤의 뮤즈 김현주의 관능적인 매력이 돋보이는 뷰티 화보. 패션 매거진 마리끌레르와 함께 촬영한 이번 화보에서 김현주는 짙은 브라운 헤어에 베이지 톤 의상을 매치해 강렬하고 매혹적인 가을 룩을 선보였다. 김현주의 메이크업 포인트는 파우더리 한 피부 표현과 은은한 음영 메이크업. 전체적으로 차분한 느낌 속에서 버건디 립으로 독보적인 아우라를 발산했다.

New & Hot



비바이바닐라, 립모션 컬렉션

비바이바닐라가 벨벳, 젤리의 두 가지 질감과 10가지 컬러로 구성된 '립모션 컬렉션'을 출시했다. 비바이바닐라의 이번 컬렉션에서는 바이올렛 컬러의 '포도립', 젓은 벽돌색의 '아메리카노립'부터 최근 유행하는 자연스러운 립 컬러인 '구운장미립'까지 최근 각광받는 립와 함께 SNS에서도 돋보일 수 있는 셀피전용 패키지로 구성된 립스틱이다. 포인트 메이크업에 활용하기 좋은 돋보이는 컬러로 구성됐다.



Collaboration

젤라또팩토리 × 디즈니

올가을 디즈니의 대표 인기 캐릭터가 네일 스티커 속으로 들어온다. 셀프 네일 브랜드 젤라또팩토리가 글로벌 기업 디즈니(Disney)가 만났다. 디즈니의 대표 인기 캐릭터이자 90주년을 맞은 미키 마우스는 물론, 미니 마우스, 도날드 덕, 데이지, 구피, 플루토 등 다양한 캐릭터를 간편하게 네일 스티커로 즐길 수 있도록 했다. F/W 네일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는 호피, 체크 등을 반영한 총 8종, 리미티드.

동성제약 × 제니하우스

동성제약이 청담동 뷰티 살롱 제니하우스와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제니하우스 살롱 코드 글램 헤어컬러'를 런칭해 CJ소쇼핑을 통해 첫선을 보였다. '제니하우스 살롱 코드 글램 헤어 컬러'는 염모제와 특수 앰플, 트리트먼트가 함께 구성된 염색과 케어를 동시에 실현해 준다. 빗질할 필요 없이 샴푸 하듯 머리에 발라주는 사용법으로 머릿결 손상 없이 셀프로 경험할 수 있다.



Re-Launching



쇼파드 퍼퓸

160년 전통의 스위스 럭셔리 주얼리 브랜드 쇼파드의 향수 라인이 다시 돌아왔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쇼파드 퍼퓸의 향수 라인은 '해피 쇼파드 (Happy Chopard)' 컬렉션이다. 창의적이고 대담하며 생동감 넘치는 정신에서 영감을 받았다. 밝은 에너지와 무한한 긍정의 힘을 담고 있다. 해피 쇼파드 컬렉션 중 신제품 향수 '레몬 돌치(Lemon Dulci)'는 감미로운 햇살처럼 귀한 천연 원료의 강렬한 경험함으로 가득한 오 드 퍼퓸이다.

장 폴 고티에 퍼퓸

코르셋을 입은 여성의 상반신을 모티브로 한 관능적인 디자인의 '클래식' 향수로 인기를 끌었던 '장 폴 고티에' 향수를 다시 한국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됐다. 패션 디자이너 장 폴 고티에는 앙팡 테리블로 불릴 만큼 혁신적인 디자이너로 손꼽힌다.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들, 혹은 과거의 유산에서 영감을 받아 자신만의 창조물로 만들어내는 데 탁월한 재능을 지녔다.





보미라이(BOMIRAI) × 배우 최지우

배우 최지우가 원적외선 마스크 브랜드 보미라이의 모델로 활약한다. 최지우가 브랜드 뮤즈로 나선 보미라이는 국내 최초 원적외선을 핵심 기술로 적용해, 피부 개선에 도움을 주는 마스크 형태의 뷰티 디바이스 제품이다. 인체에 원적외선을 활용해 안전하고 눈부심 현상이 없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브이티코스메틱 × 배우 박은혜

배우 박은혜가 글로벌 그룹 방탄소년단과 함께 브이티 코스메틱의 새 광고 모델로 발탁됐다. 드라마, 영화, 예능 등 여러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박은혜의 밝은 에너지와 내추럴한 모습이 브랜드가 추구하는 이미지와 부합해 모델로 선정했다고. 박은혜는 브이티 코스메틱의 모델로서 광고와 홀쇼핑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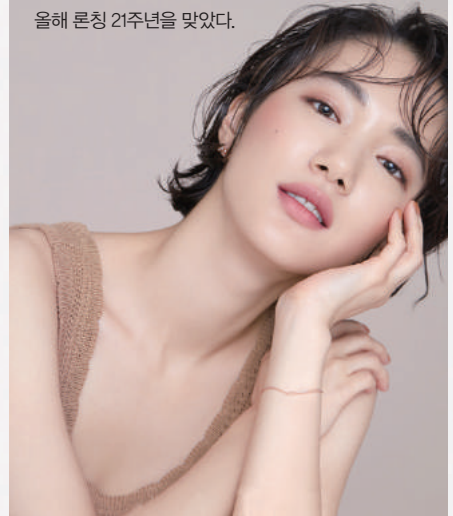
어뮤즈 × 기은세

메이크업 브랜드 '어뮤즈(AMUSE)가 패션 뷰티 핫 아이콘이자 뮤즈인 기은세와 함께 한 뷰티 화보를 공개했다. 이번 화보는 어뮤즈의 첫 번째 블러셔 제품을 활용하여 신비한 분위기 속에서의 기은세의 사랑스러운 매력을 가득 담아냈다. 신제품 '소프트크림 치크는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블러셔 (Blush Easy)를 목표로 개발됐다.



RMK × 배우 손수현

아티스트가 만든 메이크업 브랜드 'RMK'의 브랜드 엠버서더로 배우 손수현이 발탁됐다. 메이크업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보여주는 손수현의 이미지가 RMK의 기업 철학과 맞아떨어진 것. RMK는 엠버서더 발탁과 함께 베이스 제품으로 다양한 룩을 연출한 손수현의 첫 화보를 공개했다. 한편, RMK는 원래 내 피부처럼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을 추구하는 브랜드로 올해 론칭 2주년을 맞았다.



아엠미미 × 워너원 황민현

그룹 워너원 황민현이 화장품 브랜드 아엠미미의 단독 모델로 발탁됐다. 황민현은 뉴이스트의 멤버로 케이블채널 엠넷 '프로듀스 101' 시즌2에 참가자로 출전해 높은 인기로 워너원 까지 데뷔했다. 또한 워너원은 오는 11월 마지막 앨범으로 컴백을 예고해 활발한 활동으로 팬들과 만난다





SNP(에스엔피) × 황징위(黄景瑜, Johnny)

㈜에스디생명공학의 SNP 화장품이 황징위를 중국 모델로 전격 발탁하여 지면 광고 일부를 공개했다. 광고 사진 속 황징위는 깔끔한 슈트 차림에 깨끗하고 건강미 넘치는 무결점 피부를 뽐내고 있다. SNP 화장품은 황징위를 통해 향후 중국 소비자들과 원활한 소통에 역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황징위는 지난 2016년에 데뷔하였으며 웨이보 팬 수만 942만 명에 달하는 중국 인기 배우다.



토니모리 × 아이돌 몬스타엑스(MONSTA X)

토니모리가 아이돌 '몬스타엑스'를 새로운 브랜드 얼굴로 발탁했다. 몬스타엑스는 최근 무대와 예능을 넘나들며 국내외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글로벌 라이징 스타로, 토니모리의 글로벌 브랜드 뮤즈로 2년간 활동한다. 최근 몬스타엑스(MONSTA X)의 멤버 주현과 민혁이 솔로 앨범을 출시하고 셔누의 MBC 예능 프로그램 '진짜 사나이 300' 출연이 확정되는 등 다양한 매체에서 사랑을 받고 있다.



지베르니 × 모델 소미

베이스 프로페셔널 색조 브랜드 지베르니가 브랜드 모델인 가수 소미와 함께 한 뷰티 화보를 공개했다. 지베르니가 공개한 소미의 뷰티 화보는 지베르니의 대표 제품인 '밀착 커버 파운데이션' 광고 화보컷으로 매끈하고 화사하게 빛나는 무결점 피부를 강조했다. 포멀한 헤어와 스타일링, 깔끔한 피부 표현에 선명한 컬러의 화려하고 강렬한 느낌의 메이크업이 한층 성숙한 분위기를 풍겨 눈길을 끈다.

베리떼 × 래퍼 치타

래퍼 '치타'가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브랜드 베리떼의 한정판 리미티드 에디션 제품 모델로 발탁됐다. 최고의 트렌디세터로 꼽히는 치타는 2018 가을 시즌 트렌드 레오파드 패턴이 돋보이는 '프리즘 커버 쿠션 리미티드'와 함께 한다. 한편, 치타는 솔직하고 화끈한 입담으로 네티즌의 고민을 상담하며 화제를 모은 웹 예능 '센 마이웨이' 등에 출연하고 있다.



키스미 × 블랙핑크 지수 & 로제

메이크업 브랜드 키스미는 보다 적극적이고 트렌디한 커뮤니케이션을 펼치기 위해 대세 걸그룹 블랙핑크의 지수와 로제를 모델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키스미는 이에 앞서 지난 3월 본격적인 시장 확대와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위해 지난 3월 한국법인 '코리아키스미주식회사'를 설립한 바 있다. 이번 모델 선정은 한국지사 설립에 따른 공격적인 행보로 평가된다.



Company & Brand



리더스코스메틱, 헤어케어 영역 확대

리더스코스메틱이 헤어케어 제품군으로 영역을 확장한다. 흡수핑을 통해 선보인 '살롱 바이 리더스 헤어 커버 볼륨 트리트먼트'는 매일 사용 가능한 신개념 새치 커버용이다. 일반 염모제와 컬러 트리트먼트제와 달리 별도로 씻어낼 필요가 없다. 또 두피 저자극 테스트, 민감성 피부테스트, 윌터프루프 등 각종 임상실험을 완료했다.

Global



미장센, 중국 진출 본격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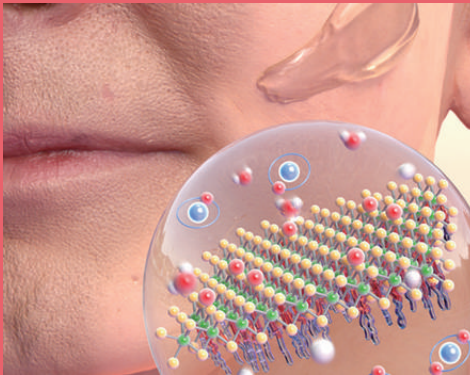
호텔 헤어 코스메틱 브랜드 미장센이 중국 진출로 글로벌 사업을 본격 확대했다. 미장센은 중국 고객이 선호하는 프로그레스(香) 트렌드를 적용한 전용 상품을 새롭게 개발, 총 34개 제품을 드럭스토어와 e커머스를 통해 선보인다. 또 중국 아이돌 그룹 '나인 퍼센트'의 인기 멤버 천리농을 중국 모델로 발탁해 중국 내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해 나간다.

닥터자르트, '29ROOMS 뉴욕' 스폰서 참가

닥터자르트가 미국의 저명한 패션·라이프스타일 디지털 미디어 리파이너리29가 주최하는 '29ROOMS 뉴욕 2018' 행사에 스킨케어 브랜드 단독 스폰서로 참가해 브랜드 전시를 진행한다. '29ROOMS'는 리파이너리29가 주최해 2015년 뉴욕에서 시작된 팝업 전시회로 창의적이고 감각적인 테마로 각각 개성 있게 꾸며진 29개의 방을 관람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참여형 행사다.



Sci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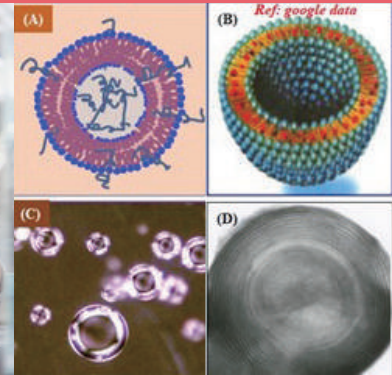
아모레퍼시픽, 신개념 전자 항산화제 개발

아모레퍼시픽 기술연구원은 한양대학교 ERICA 캠퍼스와 공동연구를 통해 노화의 원인으로 알려진 활성산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신개념 유·무기 하이브리드 전자 항산화제를 개발했다. 이번에 개발한 해당 신소재는 유·무기 하이브리드 전자 항산화제로, 다양한 활성 산소에 대하여 뛰어난 효과를 보였다. 또 물, 오일, 산성도, 온도, 빛 등 여러 환경 변화에서도 항산화 성능이 안정적으로 지속된다.



한국콜마, 탄성 리포좀 개발 성공

한국콜마가 새로운 피부 전달체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세계적 권위의 SCI급 저널인 '나노 매터리얼스' 8월호에 관련 논문이 게재됐다. 이번 연구는 자유자재로 몸집을 늘었다 줄였다 할 수 있어 피부의 좁은 틈을 통과해 피부 깊숙이 침투 가능한 피부 전달체에 관한 내용이다. 한국콜마 기초 화장품 연구소는 수년간에 걸쳐 새로운 피부 전달체 '탄성 리포좀' 개발에 성공했다.



BIOBEAUTECH

바이오부텍, 연구발표 세계적 호평

계면과학과 콜로이드 화학을 기반으로 한 화장품 원료 전문 회사 바이오부텍은 독일 뮌헨에서 개최된 IFSCC 2018 Congress (세계 화장품 과학자 학회)에서 '이데베논을 MLV 니오솜 나노-파티클의 안정화 및 피부 개선 효과에 관한 연구'를 발표해 호평을 받았다. 이 연구는 항노화 소재인 이데베논을 투명하게 안정화시킨 기술로 지난해 특허등록을 마쳤고, 피부 개선 효과를 입증하는 데 성공했다.

**신세계인터내셔널,
독자개발 럭셔리 화장품 공식 론칭**

신세계인터내셔널이 화장품 브랜드 '연작(YUNJAC)'이 공식 론칭했다. '자연이 만든 작품'을 뜻하는 연작은 과학기술로 고급 한방 원료의 효능을 극대화한 고기능성 자연주의 화장품이란 점을 내세웠다. 이탈리아 기업 인테코스의 독자 기술을 통해 한방의 단점을 보완하고 고기능과 저자극을 동시에 실현했다.



Shop



'피에로쇼핑', 명동 진출

피에로쇼핑이 명동에 진출한다. 자리는 현재 부츠 명동점, 이마트 측은 지난해 부츠 명동점을 10월 31일까지만 영업하고 해당 영업공간을 피에로쇼핑이 인계받게 될 것이라 발표했다. 피에로쇼핑은 '핀 앤 크레이지(fun&crazy)'를 표방하며 '요지경 만물상' 콘셉트로 코엑스 오픈 당시부터 큰 관심을 모았다. 첫 점포는 지난 6월 코엑스, 2호점은 동대문 두타에 9월 오픈했다.

아리따움, 뷰티 편집숍으로 탈바꿈

아모레퍼시픽 멀티 브랜드숍 아리따움이 자사 브랜드와 타사 브랜드를 함께 판매하는 뷰티 편집숍으로 탈바꿈했다. 새로 론칭한 '아리따움 라이브 강남'에는 아모레퍼시픽 브랜드뿐 아니라 59개 타사 브랜드가 함께 판매된다. 전국 아리따움 매장과 아모레퍼시픽이 가진 영향력을 감안할 때 올리브영의 독주체제인 편집숍 시장에도 새 바람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콜렘 2D4(투디포), 'IDEA 2018'서 동상

콜렘은 색조 화장품 브랜드 '2D4'가 세계 3대 디자인상 중 하나인 'IDEA 2018'에서 브랜딩 부문 동상을 수상했다. IDEA 2018은 미국 산업디자이너협회(IDSA)가 주관하는 국제 디자인 상으로, 북미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디자인상으로 알려져 있다. 2D4는 일상에 기쁨을 주는 메이크업이라는 뜻의 'To Delight For'의 약자다.



**라라랩(la+Lab),
'가장 주목받는 브랜드' 수상**

에프엔코의 프리미엄 마스크 브랜드 '라라랩'이 '2018 제6회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가장 주목받는 브랜드'로 선정됐다. 한국마케팅협회가 주최하고 KMA 소비자 평가가 주관하는 '2018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은 고객가치 중심의 마케팅 활동으로 시장성과를 거둔 기업, 개인 등에 시상하고 있으며, '가장 주목받는 브랜드'는 혁신적인 미래지향적 상품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브랜드에게 시상하는 부문이다.

**에스쁘아,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
뷰티 부문 최우수상**

프로페셔널 메이크업 브랜드 에스쁘아가 한국마케팅협회 주최 '2018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 뷰티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에스쁘아는 동양인 특유의 피부 결과론에 최적화된 다채로운 컬러와 혁신적인 제품들로 동양인 얼굴의 윤곽과 눈매에 최적화된 메이크업 룩을 선보이며 아시안 메이크업을 리드하고 있다.





Event & Campaig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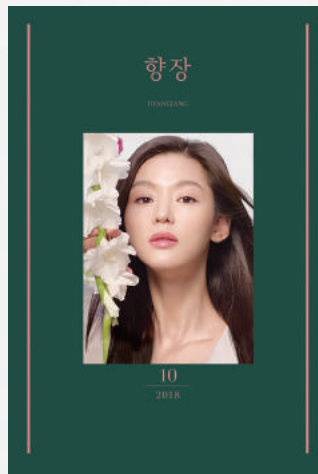


아모레퍼시픽 미술관, '조선, 병풍의 나라' 개최

아모레퍼시픽 미술관이 조선시대에 제작된 다양한 병풍을 한 자리에 모은 기획전 '조선, 병풍의 나라 (Beyond Folding Screens)'를 신용산 아모레퍼시픽 미술관에서 개최 중이다. 기획전 '조선, 병풍의 나라'는 궁중과 민간에서 제작하고 사용한 병풍의 종류와 특징을 조명하는 동시에 다양한 그림 속에 담긴 이야기와 오늘날까지 우리 생활 속에서 차지한 의미를 찾아보고자 기획됐다. 나아가 공간을 나누고 분위기를 연출하며 갖가지 의례와 행사에 사용되던 병풍이 갖는 가치와 조형적인 멋까지도 함께 살필 수 있다.

뷰티 매거진 '향장' 600호 발행 기념 특별전

아모레퍼시픽은 뷰티 매거진 '향장'의 600호 발행을 기념해 본사 1층에서 10월 1일~5일까지 '향기로 단장하다(展)'를 열었다. 아모레퍼시픽에서 60년 동안 600호를 발행한 '향장'은 국내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뷰티 매거진이다. 아모레퍼시픽은 1958년 미용 월간지 '화장계'를 창간하며 패션 경향과 문화, 해외 소식 등을 전하기 시작했다.



2018 설화문화전 '포춘랜드 - 금박展'

한국 대표 럭셔리 뷰티 브랜드 설화수가 2018 설화문화전 '포춘랜드 - 금박展'을 용산 아모레퍼시픽 그림 본사에서 개최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오는 12월 14일까지 이어진다. 2018 설화문화전 '포춘랜드 - 금박展'은 직물 위에 얇은 금박으로 글씨나 문양을 찍어 길상의 의미를 담았던 한국의 전통 기술, '금박'을 주제로 옛 선조들이 그린 아름다움을 현대적으로 재조명한다. 무형문화재 119호 김덕환 장인의 작품을 비롯해 공간, 그래픽, 오브제, 패션, 만화, 미디어, 사운드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현대작가 총 13팀이 전통 금박 예술에서 얻은 영감을 토대로 제작한 작품을 선보인다.

Event



코스메 도쿄 & 코스메 테크

코스메 도쿄·코스메 테크 사무국은 일본 최대 코스메틱 전시회인 코스메 도쿄 2019(COSME TOKYO 2019)와 코스메 테크(COSME Tech 2019)가 2019년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개최된다. COSME TOKYO는 2012년 론칭 이래 매년 전 종류의 화장품(스킨케어, 헤어&바디 케어 용품, 내추럴·오가닉 상품, 메이크업 용품, 향수, 멘즈 케어 등)을 소싱할 수 있는 가장 큰 기회의 장으로 성장했다. 일본 화장품의 현황을 체크할 수 있는 가장 큰 박람회로 주목받고 있으며, 뷰티&헬스 푸드에 초점을 맞춘 제2회 Inner Beauty Tokyo와 코스메틱 개발 관련 (OEM/패키징) 전시회인 제9회 COSME Tech도 함께 열린다.



알리바바, '11.11 쇼핑 페스티벌' 카운트다운

알리바바 그룹이 오는 11월 11일 광군제 쇼핑 행사를 대대적으로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알리바바 그룹의 '11.11 글로벌 쇼핑 페스티벌' 10주년을 맞는 해로, 2년 전부터 펼쳐온 '신유통 전략'을 펼쳐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이번 행사는 그룹 전체 비즈니스 생태계가 협력해 진행하며, 디지털 기반 유통혁신은 물론 쇼핑과 엔터테인먼트가 결합한 최대 규모의 이벤트로 기획됐다. 한편, 이 행사는 2009년 다니엘 장 CEO가 싱글이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11월 11일 중국 광군제에 세계 최대의 연례 쇼핑 이벤트로 시작했다. 총 거래액(GMV : Gross Merchandise Volume)도 첫째 미화 780만 달러에서 지난해 미화 253억 달러로 괄목할 만큼 성장했다.



아리따움 라이브 강남, 뷰티 트렌드 라이브 쇼

아모레퍼시픽은 새로운 체험형 콘텐츠 멀티 브랜드샵 '아리따움 라이브(Live) 강남'에서 지난 올 가을 최신 메이크업 트렌드를 소개하는 '뷰티 트렌드 라이브(BEAUTY TREND LIVE)' 쇼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아모레퍼시픽의 전문 메이크업 아티스트들과 '헤라 서울 패션 위크'의 메이크업과 헤어 연출을 총괄하는 전문가들이 함께 2018년 가을 최신 트렌드인 '컬러어텀(COLOR AUTUMN) #오겐 장미' 립 메이크업 포인트를 소개하는 런웨이를 컨셉으로 진행됐다.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하반기 캠페인

암 치료 과정에서 피부 변화, 탈모 등 급작스러운 외모 변화를 겪는 여성 암 환자들에게 스스로를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뷰티 노하우를 전수하고 이를 통해 일상으로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아모레퍼시픽의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하반기 캠페인이 대구 계명대학교 동산 병원을 시작으로 실시됐다. 서울과 전국 주요 지역 19곳의 병원에서 진행할 예정으로, 방문판매 경로의 아모레 카운슬러와 아모레퍼시픽 교육 강사가 자원봉사자로 참가해 여성 암 환자들을 위한 '진정한 미의 전도사'로 활동한다. 하반기 캠페인은 국내 포함 태국·중국·말레이시아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번 캠페인에 참가한 모든 환자를 위해 특별 구성한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키트'를 제공한다.



시니어뷰티코리아선발대회

시니어뷰티코리아선발대회가 광주광역시 교통 문화연수원에서 개최된다. 지난해 첫 대회에서 29명의 시니어들이 화려한 청춘 부활을 알렸다. 이번 대회는 지속 가능한 건강한 아름다움을 창조해 시니어 여성들의 건강, 뷰티, 교육에 대한 새로운 트렌드의 제시와 아름다움에 대한 열망, 삶에 대한 열정을 느끼게 하고 'Well-aging life'를 위한 꿈의 대회로 기대된다.



제주 천연화장품·뷰티박람회

'천연·제주'를 콘셉트로 내걸고 아시아권 유력 '천연화장품 박람회'로 입지를 다져가고 있는 제주천연화장품·뷰티박람회가 오는 11월 2일~4일까지 열린다. 제주한라대 컨벤션센터에서 참가기업 부스와 테마관으로 구성된 전시회를 비롯해 초청 바이어 상담회, 국제 화장품 지식포럼, 국제 미용기능대회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2018 제3회 싸이클린배 WBCA 뷰티페스티벌

세계뷰티화장품연합회(WBCA)는 오는 11월 20일 서울 강서구 KBS아레나홀에서 WBCA 뷰티페스티벌 조직위원회, (재)싸이클린 무브먼트 주관으로 2018 싸이클린배 제3회 WBCA 뷰티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메이크업, 빈영구화장, 속눈썹 연장, 피부미용, 네일아트, 헤어, 왁싱 등 미용 전 종목 종합경기대회로 치러진다. WBCA 뷰티페스티벌은 세계 20여 개국의 엄선된 미녀들이 참가하는 싸이클린 월드 모델 선발대회와 뷰티박람회가 함께 치러져 말 그대로 뷰티페스티벌로 개최될 예정이다.



Fashion News

Style



BYC, 김소은 FW 룩

BYC가 란제리 전속 모델인 김소은과 함께 한 2018 F/W 화보. 김소은은 '셀핑크와 '르 송'의 따뜻함을 강조한 윈톤 컬러에 스타일리시하고 감각적인 디자인이 돋보이는 룩. 보다 깊고 매혹적인 컬러에 클래식하면서도 시크함과 은은하게 풍기는 따뜻한 느낌의 전혀 다른 분위기를 영화 속 여주인공의 감정으로 담았다.



쥬시쥬디, 캐시미어 핸드메이드 코트

쥬시쥬디의 프리미엄급 캐시미어 원사를 블렌딩 한 이중지 원단을 사용한 캐시미어 핸드메이드 코트. 올해 FW 트렌드인 레트로 무드의 체크 코트를 비롯해 라이더 스타일의 숏 코트, 레터링으로 위트를 가미한 롱코트, 컬러 배색과 체크 패턴으로 포인트를 준 믹스 코트도 눈길을 끈다.



Collaboration

메트로시티 x 스타일 디렉터 헥터 카스트로

이탈리아 네오클래식 브랜드 '메트로시티'는 세계적인 스타일 디렉터 헥터 카스트로와 손을 잡고 모던하고 스타일리시한 컬래버레이션 라인을 출시한다. '헥터 카스트로 18FW'는 자체 개발한 '라 로사 비앙카' 모티프다. 블랙 및 메탈릭 실버 등을 포인트로 한 칼팅백과 웨어러블 한 고어 룩을 트렌디하게 재해석한 컬러 블록 후디, 아노락 등이 눈길을 끈다.



스트리트 무드 물씬!

감각적이고 독창적인 코디법으로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요즘 세대의 취향을 반영해 다채롭고 신선한 분위기를 담아낸 TBJ 어드밴스드 라인(ADVANCED LINE). 올 가을 체크 패턴 다운 점퍼와 스트리트 분위기의 소매 배색 티셔츠 등이 데님과 어울리는 매치 아이템이다.



빈폴 레이디스's Ice

아이시한(cy) 블루 컬러의 체크 더플코트 등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컬러와 패턴 등 클래식 아이템의 재해석. 블랙/그레이/퍼플 등을 베이스로 아이스에서 연상되는 마젠타, 코발트 블루, 퍼플, 옐로 등 비비드 한 컬러를 사용한 것이 디자인 포인트.



New

해리 언(HARRIAN)

뉴욕 감성 컨템퍼러리 패션 브랜드 '해리 언'의 크리스토퍼 시그니처 라인 핸드백이 국내 최초로 미국 명품 백화점인 니먼마커스에 상륙했다. 해리언의 뉴욕 수석 디자이너 크리스토퍼 벨트가 2017년 글로벌 핸드백 디자이너 어워즈인 IHDA(The Independent Handbag Designer Awards)에서 총 7개 부문 중 3개 부문을 수상해 3관왕을 차지한 제품이다.

나이스크랩 × 가수 선미

최근 여성복 '나이스크랩' 뮤즈로 발탁된 가수 '선미'는 브랜드 뮤즈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출근길과 공항 패션에서 나이스크랩과의 완벽한 공감을 자랑했다. 가을 분위기 물씬 풍기는 스타일링으로 많은 여성들의 관심을 받았다.

Model



Launching

신개념 플랫폼 '웨이브앤라이브' 오픈

웨이브앤라이브는 패션, 문화, 라이프스타일을 기반으로 화보와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신개념의 플랫폼인 '웨이브앤라이브'를 2018년 10월 8일 오픈했다. 첫 번째는 싱글레어의 이정록 디자이너로 컬렉션 라인의 보머 자켓과 기본라인의 스웨트셔츠로 플랫폼 '웨이브앤라이브' 스타트를 끊었다. 웨이브앤라이브는 K-TREND를 이끈 아티스트와 문화, 라이프 스타일을 믹스시킨 다양한 아이템으로 대중들에게 다가갈 방침이다.



보브, 워킹 우먼의 하루 #VTV 영상 공개

신세계인터내셔널의 여성복 '보브(VOV)'에서 유튜브 등 영상에 익숙한 밀레니얼 세대를 겨냥한 뮤직비디오 형식의 패션 화보 #VTV를 공개했다. 그간 패션업계에서 화보 촬영 비하인드 신 혹은 인터뷰 등의 영상을 따로 공개한 적은 있어도 화보 자체를 뮤직비디오로 촬영한 것은 보브가 처음이다. 음원은 80년대 팝 명곡 돌리 파튼(Dolly Parton)의 '9 to 5'.



On-Air

코오롱스포츠 × 드라마 '최고의 이혼'

아웃도어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코오롱 스포츠'가 배우나와 차태현 주연의 KBS2 새 월화드라마 '최고의 이혼'을 제작 지원한다. 드라마 '최고의 이혼'은 세계적인 스타로 거듭난 배우나와 배우 차태현이 주연을 맡아 방영 전부터 이슈몰이를 하고 있다. 코오롱스포츠는 8년 만에 지상파 드라마에 복귀한 브랜드 뮤즈 배우나를 적극 응원하며, 이번 드라마 제작지원을 통해 아웃도어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로서의 다양한 제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메간 헤스의 아이코닉 전

패션 아티스트 메간 헤스의 아이코닉 전시가 10월 18일~12월 30일 갤러리아 포레 더라이트룸에서 열린다. 메간 헤스는 <섹스 앤 더 시티> 삽화 작가이자 수많은 럭셔리 브랜드와 협업한 일러스트레이터 아티스트다. 이번 전시는 럭셔리 브랜드 작품과 그녀만의 독특한 일러스트레이션 스타일로 그려 낸 작품들, 해외 유명인들의 드레스 스케치 등 300여 점의 작품을 볼 수 있으며 MD 상품 수익금 일부는 '스마일포 칠드런'에 기부되며 여성 암환자들을 위한 행사 역시 동참의 뜻을 밝혔다.

Exhibition

秋 秋 香

가을의

추

가을의

추

향기

향

자색 고구마 브래드



콘칩 블렌디드



콘칩 라떼



스카치 캔디 블렌디드



스카치 캔디 라떼



지금 "퍼플멤버스" 어플을 다운 받으시면
가을 신메뉴 1+1쿠폰을 드립니다! (2018년 11월 11일까지)



* 상기 이미지는 실제 제품과 다를 수 있으며, 판매 제품은 점포별로 상이 할 수 있습니다.

Necks & Decollete

목과 어깨선의 비밀

얼굴 라인에서 목과 쇄골로 이어지는 라인이 가늘고 길면 여성스러운 것은 물론, 엘레강스의 기본이다. 메이크업이든 패션이든 대중만 해도 품위가 물씬 풍기는 목과 어깨선의 관리방법. 얇고 예민한 부분이지만, 평소 신경을 써주면 무엇보다도 우아해 보이는 초겨울 집중 케어 스폿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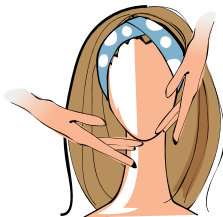
Elegance Spot

목과 어깨선이 안티에이징의 중요한 키워드로 등장했다. 해부학적으로 움직임이 많고 자유로운 부위라 주름이 쉽게 생기는 부분. 그대로 방치하면, 얼굴 라인이 무너지면서 둥글고 넓적한 얼굴로 변하기도 한다. 나이테처럼 선명한 목주름방지도 중요하지만, 얼굴을 밝혀주는 목에서부터 이어지는 쇄골 라인이 탄탄해야 얼굴선이 처지지 않고 탱탱하다.

◀ 기초 관리

목부분이 쉽게 탄력을 잃는 원인 중 하나는 다른 부위보다 특별히 얇고 건조해서다. 스카프나 터틀넥 등으로 가려져서 오히려 케어가 소홀하게 되는 스폿이기도 하다. 히알루론산 혹은 콜라겐 형성을 돕는 성분을 골라 탄력과 밀도를 유지하거나 펩티드 성분이 진피층을 탄탄하게 채워주는 제품을 바르는 것도 도움이 된다. 부위별 마사지 법을 숙지하면 전용 제품 못지않은 기초 관리도 가능하다. 부위별 전용 제품이 준비돼 있지 않을 땐 아이크림을 바르는 것도 방법이다.

HOW TO MASSAGE



★얼굴 선

턱 안쪽 이중 턱이 생기는 부위까지 제품을 꼼꼼히 발라주고, 턱부터 양쪽 귀뒤까지 끝 어울리듯 마사지해준다.



★목

잔주름 사이사이에도 흡수되도록 크림을 가로방향으로 바른 후 가볍게 꼬집어 진피 세포에 긴장감을 준다.



★데콜테

쇄골 위아래를 지압한 후 림프 샘 방향을 따라 겨드랑이 쪽으로 쓸어준다. 노폐물이 배출되면서 혈액 순환에 도움을 주고 결과적으로 주름을 예방해 주는 효과가 있다.



Enjoy, like a festival!

한여름 땀방울을 견뎌낸 나무들이 한껏 물이 올라 아름다운 계절. 파란 하늘에 뜬구름 마저 한 폭의 그림처럼 늦가을의 풍경도 깊어진다. 브리즈가 엄선한 11월의 걸처 감성 베스트 10.

Theater

에쿠우스(EQUUS)

충무아트센터 중국장 블랙 | 2018. 09. 22 ~ 2018. 11. 18.



한국 초연 43주년, 극단 창단 58주년을 맞아 극단 실험극장이 단독으로 기획, 제작한 <에쿠우스>는 실화를 토대로 피터 쉐퍼가 2년 6개월에 걸쳐 창작한 희대의 명작이다. 극작가 피터 쉐퍼는 이 작품으로 1975년 뉴욕비평가상과 토니상 최우수 극본상을 안겨 준 작품이기도 하다. 연극 <에쿠우스>는 원작의 충실한 구현으로 원작이 지닌 역동적인 극의 템포와 에너지를 가장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무대라는 평가받고 있다.

synopsis | 헤스터 판사는 7마리 말의 눈을 찌르는 17세 소년 알련을 감옥 대신 정신과 의사 마틴 다이사트에게 보낸다. 치료를 위해 다이사트가 방문한 알련의 집. 다이사트는 기독교인 어머니와 사회주의자 아버지 사이에서 혼란으로 짓눌린 알련을 마주한다. 다이사트는 광기 어린 모습 뒤에 순수함이 있는 알련을 알아갈수록 무기력과 절망에 빠져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데...

아트(Art)

서울 종로구, 유니플렉스 2관 | 2018. 09. 07(금) ~ 2018. 11. 04(일)



15년 간 지속된 온 세 남자의 우정이 허영과 오만에 의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일상의 대화를 통해 표현하는 블랙 코미디. 프랑스 극작가 야스미나 레자의 연극 <아트>는 현재까지 15개 언어로 번역되어 35개 나라에서 공연되었고, 몰리에르 어워드 베스트 작품상, 이브닝 스탠더드상, 토니 어워드 베스트 연극상, 로렌스 올리비에 뉴 코미디 상, 뉴욕 드라마 비평가 협회 베스트 상 등을 수상했다.

synopsis | 어느 날, 친구 세르주가 화랑에서 하얀 바탕에 하얀 줄이 그려진 그림을 2억을 주고 구매한다. 그림을 이해할 수 없는 마크는 비아냥거리고 농담으로 세르주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든다. 결국 두 사람은 '좋고 싫음'을 표현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는 친구 이반을 사이에 두고 영역 싸움까지 벌인다. 가까워지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엮여있는 '불편한 관계'가 돼버린 두 사람. 그들은 어떻게 15년의 만남을 지속해온 것일까? 그리고 애초에 '하얀 그림'은 왜 문제가 된 것일까?

지킬 앤 하이드

사롯데씨어터 | 2018. 11. 13 ~ 2019. 05. 19.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는 영국의 소설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소설 '지킬박사와 하이드 씨의 이상한 사건'을 원작으로 세계적인 작곡가 프랭크 와일드혼이 작가 레슬리 브리커스와 협력해 탄생시킨 작품이다. 한 인물이 가진 두 가지 인격, 지킬과 하이드로 '선'과 '악'을 상징, 표현하며 인간 내면의 이중성을 다룬다. 누적 공연 횟수 1100회 돌파, 누적 관객 수 120만 명을 돌파했다.

synopsis | 1885년 런던. 유복한 헨리 '지킬'은 정신질환을 앓는 아버지와 같은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해 사람의 정신에서 선과 악을 분리할 수 있는 치료제 연구를 시작한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 실험 단계에 이르렀지만 이사회에 반대로 실험은 무산되자 스스로가 실험 대상이 되기로 결정한다. 그의 바람대로 선과 악을 분리시키는 데 성공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악으로 가득 찬 제2의 인물 에드워드 '하이드'가 지킬을 장악하며 통제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게...

지하철 1호선

학전 블루소극장 | 2018. 09. 08 ~ 2018. 12. 30.



1994년 초연된 후 15년간 4000회 동안 70만 명이 넘는 관객들을 만난 대한민국 공연계의 대표작이 10년 만에 재공연을 갖는다. 대학로 소극장의 신화를 써 내려가며 대학로의 번영에 일조했다. 한국 뮤지컬 최초 라이브 밴드 도입, 11명의 배우가 80개의 역할을 연기하는 1인 다역 연기, 소극장의 한계를 극복한 전동 계단식 무대 등 다양한 볼거리와 들을 거리가 관객들을 만족시킨다.

synopsis | 1998년 11월 서울, '제비'가 건네준 초소와 사진만 갖고 이른 아침 서울역에 도착한 연변 체너 '선녀'. 하지만 지하철에서 걸인 '문디'와 '명식' 그리고 어디선가 본 듯한 '빨강머리'를 만나면서 그녀의 기대는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한다. 임신을 한 그녀를 불쌍히 여긴 '철수'는 '제비'를 찾아줄 테니 서울역 '공보함'의 포장마차에서 기다리라고 한다. 서울역 포장마차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선녀'는 서울 보통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들과 만나게 되는데...

Musical

더 데빌(The DEVIL)

두산아트센터 연강홀 | 2018. 11. 07 ~ 2019. 03. 17.

Musical
1



괴테의 파우스트. 이를 모티브로 인간의 욕망과 선택에 관한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2014년 초연 직후 파격적이면서도 난해하다는 엇갈린 평가를 받았다. 이후 2017년 재연을 올리면서 다방면의 변화를 꾀했다. 기존의 3인극에서 4인극으로 캐릭터를 재구성하고, 기존 서사 방식의 틀을 깬 파격적인 시도, 드라마보다 상징성을 강조한 무대 등이 매 시즌 화제를 모으고 있다.

synopsis | 전도유망한 주시 브로커 '존 파우스트'는 사랑하는 여인 '그레첸'과 행복한 미래를 꿈꾸지만, 추가 대폭락 사태인 '블랙 먼데이'를 맞은 이후 모든 것을 잃고 추락한다. 그가 실의에 빠진 틈을 타 악의 상징인 '엑스-블랙'은 유혹의 손길을 뻗치고, 그의 제안을 받아들인 존은 타락해간다. 성공과 쾌락에 중독된 존은 그레첸의 목에 다이아몬드가 박힌 목걸이를 걸어들 수 있게 됐지만...

키다리 아저씨(Daddy Long Legs)

백암아트홀 | 2018. 08. 31 ~ 2018. 11. 18.

Musical
3



제루샤와 제르비스가 편지를 매개로 함께 성장하고 사랑하는 과정을 따뜻하게 담아 낸 혼성 2인극. 진 웹스터의 동명 소설을 무대에 옮긴 작품이다. 별다른 무대 전환이나 의상의 변화 없이도 탄탄한 구성과 배우들의 호연으로 2016년 초연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이다. 특히 '키다리 아저씨' 제르비스 역에는 세 명의 같은 배우가 초연부터 삼연까지 꾸준히 이름을 올리고 있다.

synopsis | 고아원 밖의 세상을 꿈꾸던 제루샤에게 수수께끼의 한 남자가 대학 공부를 후원해 준다. 제루샤는 그에게 '키다리 아저씨'라는 별명을 붙여준다. 대학 생활을 하던 제루샤에게 키다리 아저씨와 새로운 인연인 제르비스. 그리고 그녀가 발견하지 못한 비밀이 남아 있는데...

젠틀맨스 가이드(사랑과 살인 편)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 2018. 11. 09 ~ 2019. 01. 27.

Musical
2



평생 가난하게 살아온 '몬티 나바로'가 어느 날 자신이 다이스퀴스 가문의 여덟 번째 후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가문의 백작이 되기 위해 자신보다 서열이 높은 후계자들을 한 명씩 없애는 과정을 다룬 뮤지컬 코미디. 토니 어워드, 드라마 데스크 어워드, 외부비평가 협회상, 드라마 리그 어워드 등 브로드웨이 주요 시상식에서 작품성과 흥행을 인정받았다.

synopsis | 1909년 런던. 낮은 신분으로 돈 한 푼, 직장도 없이 살아가던 '몬티'는 자신이 고귀한 다이스퀴스 가문의 여덟 번째 후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 소식을 사랑하는 '시벨라'에게 털어놓지만, 그에게 돌아오는 청찬벽력 같은 한마디. "네가 후계자가 되려면 네 앞의 8명이 죽어야 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 '몬티'는 후계자가 되기 위한 방법을 선택하는데..."

어쩌면 해피엔딩

DCF대명문화공장 1관 | 2018. 11. 13 ~ 2019. 02. 10.

Musical
4



2014년 가을부터 우란문화재단의 인력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개발된 작품. 2015년 트리아아웃 공연 당시 티켓 오픈 3분 만에 전회 매진, 2016년 정식 초연 97회 중 70회 매진을 기록한 대중성과 작품성을 갖춘 창작 뮤지컬이다. 섬세하고 세련된 이야기와 재즈, 클래식을 녹인 음악, 배우들의 연기가 조화를 이뤄 제 2회 한국뮤지컬어워드 6관왕, 제 6회 예그린 어워드 4관왕을 차지했다.

synopsis | 사람과 완전히 흡사한 로봇인 올리버와 클레어. 이제는 구형이 되어 버려져 홀로 외롭게 살아간다. 우연히 서로를 마주하고 조금씩 가까워진 둘. 반딧불을 찾아 예기치 않은 여행을 함께 하면서 사랑이란 감정을 배우게 된다. 하지만 사랑이 깊어질수록 슬픔 또한 배우게 되는데...

Performance

태양의서커스-쿠자

잠실종합운동장 내 빅탑 | 2018. 11. 03 ~ 2018. 12. 30.

Performanc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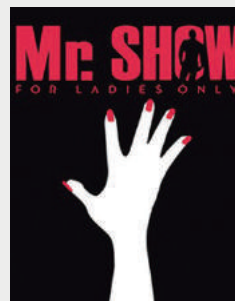


2007년 초연된 이후 전 세계 19개국 61개 도시 8백만 관객을 열광시킨 <쿠자>는 태양의 서커스 중 최장기간 투어 기간을 갱신한 작품이다. 인간의 몸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최고 난이도의 화려함과 유연함을 공연예술로 승화했다. 이국적이고 아름다운 라이브 음악, 유머러스한 광대 연기, 1,080개의 소품과 의상, 감동적인 스토리의 조화가 완벽하게 어우러진 환상적인 종합예술이다.

미스터쇼(Mr.SHOW)

신한카드 FAN(팬)스퀘어 | 2018. 09. 14 ~ 2019. 01. 27.

Performance
2



'미스터쇼'는 여성들의 숨겨진 본능을 자극하고 마음속 판타지를 솔직하게 그린 유쾌한 버라이어티 쇼다. 박칼린 감독이 구성과 연출을 맡은 작품으로 여성만 출입할 수 있는 관람 조건, 관능적이고 세련된 무대 연출로 객석의 환호와 반응이 어우러져 유쾌한 웃음을 유발하는 공연이다. 초연 당시 흥행과 전국투어, 일본 진출 등의 성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쇼로 자리매김했다.

2018 November Lucky Keyword

Depend on You!



물병자리(1월 20일~2월 18일)

현재는 미래의 거울이에요

모두가 힘들다고 포기한다고 당신 그래야 한다는 법은 없어요. 중심을 잃지 말고 주관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일상이 지루하다면 주변을 둘러보세요.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한다면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세요. 특유의 낙천성을 잃지 말고 미소를 유지한다면 신뢰를 받을 거예요. 약간의 구설수가 우려되니 평소 주변 관에 신경 쓰거나 아예 귀를 닫아버리는 것도 방법이지요. 솔로는 현재에 충실하다 보면 자연스레 인연이 생길 거예요.



물고기자리(2월 19일~3월 20일)

집중력이 필요한 시기예요

이 시기에는 허풍을 조심해야 합니다. 타인의 신뢰를 잃을 수도 있어요. 주위는 평온한데 당신만 안달복달하는 것 같다면 그 원인은 자신에게 있는 경우가 많죠.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아 공공대는 일이 잦을 테니 평소 스트레스를 푸는 습관을 들이길. 직장에서는 계획에 따라 움직이고, 워든 확실할 때 보고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커플은 자신의 생각을 명확히 전달하고, 솔로는 믿을 만한 사람에게 소개받게 것이 안전합니다.



염소자리(12월 22일~1월 19일)

내색하지 말고 전략을 짜세요

주변과의 소통이 원활해져 신나는 한 달이 될 거예요. 명함 로고를 바꾸거나 침대 방향을 돌리는 등 약간의 변화를 주는 것도 좋겠네요. 당신을 견제하는 사람들이 전면에 나타날 수 있어요. 지나친 독설로 진짜 적을 만들지 않도록 주의해야겠네요. 내색하기보다는 전략을 짜서 치밀하고 은밀하게 움직이는 것이 유리해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와도 뼈를 깎는 고통이 있어야 결과가 나온다는 걸 명심하길.



양자리(3월 21일~4월 19일)

조금 더 융통성을 발휘해 보세요

이 시기에는 정말로 원하는 걸 위해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시기예요. 쓸데없는 말이 나올 것 같다면 입을 다물어 버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러나 직감적으로 이때다 싶을 때에 정말로 거침없이 나가야 합니다. 귀운도 나타나니 곤란한 일이 생기면 주변에 적극적으로 조언을 청하세요. 상사에게 대수롭지 않은 일로 찍히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커플은 의도치 않게 연인의 단점을 지적할 수 있어요. 솔로는 소개팅을 기대해 보세요.



황소자리(4월 20일~5월 20일)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세요

누군가의 말을 듣고 대수롭지 않게 저지른 일이 무척 큰일로 변질 수 있는 한 달이에요. 당신만 덩달하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닙니다. 꼼꼼히 점검하고 기초부터 다시 쌓아 나가야 좋은 성과를 보겠네요. 당장 원하는 결과가 나지 않더라도 차근차근 준비하세요. 직장에서는 기획안에 충실하세요. 커플은 연인에게만 집중하길, 솔로는 상대방의 관심사부터 확실히 챙기세요.



쌍둥이자리(5월 21일~6월 21일)

한발 물러서서 멀리 보세요

자신의 입장을 주변에서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인내심을 가져보세요. 목표를 시험할 만한 일도 여기저기서 생길지도 모르지만 흔들리지 마세요. 구설수는 무시해 버리세요. 누군가가 당신에게 경쟁심을 보인다면 한발 물러서는 자세가 멀리 봤을 때 도움이 됩니다. 직장에서는 리더십을 발휘할 만한 기회를 심분 활용하세요. 커플은 연인이 짜증 부리더라도 휘둘리지 말고 솔로는 서두르지 않도록 하세요.



게자리(6월 22일~7월 22일)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세요

원하는 대로 가지를 뺏어 나가는 건 힘들지 모르지만 서두르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누군가에게 시기심을 느낀다면 그 이유를 고찰해 보고 스스로의 매력을 길러보세요. 상대가 믿다는 이유로 뒷담화를 한다면 그 화살이 결국 당신에게 돌아오니 주의하길. 직장에서는 당신의 의견이 쉽사리 먹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욕심을 버려보세요. 커플은 고급스러운 데이트를, 솔로는 옷차림에 신경을 써주세요.



사자자리(7월 23일~8월 22일)

지나치면 모자르니만 못해요

특유의 날카로움이 핵심을 꿰뚫는 능력으로 발휘될 수 있을 정도로 일의 능률이 오를 때네요. 전체적으로 상승운이지만, 자제력도 필요해요. 너무 지나치면 모자르니만 못한거죠. 가까운 사람들 간에 다툼이 벌어진다면 한 발자국 물러나 중립을 지키세요. 직장에서는 편짓을 하다 들리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네요. 커피는 연인의 푸념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솔로는 타이밍을 잘 살피서 움직이는게 좋습니다.



처녀자리(8월 23일~9월 22일)

자신의 내면에 집중해 보세요

나서야 할 때와 나서지 말아야 할 때를 잘 살펴야 할 시기. 생각 없이 던진 말에 누군가는 상처를 입고 큰 일로 번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땐 집중했던 모든 일에 몰두하는 게 좋아요. 이런 시기에는 가급적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취미생활에 몰두하는 게 효과적이예요. 직장에서는 책상 위에 작은 화분을 올려놓고 키워보세요. 커피는 직접 만든 요리를 대접하고 솔로는 어설픈 일당 같은 건 관두고 끝없이 밀어붙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천칭자리(9월 23일~10월 23일)

용기를 내서 앞으로 나가보세요

이 시기에는 자신의 능력을 한껏 펼쳐보기 좋은 시기예요. 너무 타인을 배려하다가 손해를 봤다면, 이제는 자기의 주장을 단호하게 해보세요. 특유의 승부욕을 발휘할 수 있는 시기니 이기겠다는 욕심을 부려봐도 좋겠네요. 잠음이 생기더라도 가뿐히 무시해 버리는 태도가 필요해요. 직장에서는 프레젠테이션 발표처럼 나서는 역할을 자청해 보세요. 솔로는 새로운 영역에서 인연을 찾으려 하세요.



전갈자리(10월 24일~11월 22일)

망설이지 말고 밀어붙이세요

항상 감정을 속이고 있었던 이달에는 느끼는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해보세요. 지나간 일이나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출가분해질 때까지 감정을 소모시키는 것도 나쁜 건 아니예요. 그러나 뭔가를 진행할 땐 가급적 튀지 않게 움직이길. 금지된 사람에 관심이 가거나 불필요한 인간관계에 얽매이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커피는 한 눈팔지 말고, 솔로는 무작정 틀어대지 마세요.



사수자리(11월 23일~12월 21일)

액티브한 결단력이 행운을 가져와요

쌀쌀한 가을 공기가 당신의 뇌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자극해 줄 거예요. 누군가가 생뚱맞은 제안을 한다면 일단 해보세요. 의외로 좋은 결과가 있을지 모르니까. 전문성을 갖고 하나만 공략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말로 하기 어려운 얘기는 문자나 메일 등 텍스트를 이용하길. 직장에서는 동물이나 식물을 가까이 하면 좋아요. 커피는 과감한 스킨십을 시도해 보고, 솔로는 이상형을 만날 수 있으니 돌진해 보세요.



작품명 | 공존

Copyright©esUN All Rights Reserved.
 •Instagram.com/esun-eunsun •www.grafolio.com/esunc



착한 유기농 레볼루션

* 유기농 과일 95% 이상 함유

착한 유기농 레볼루션은

..... 우리 농가에서 정성스럽게 키운 유기농 사과와 배로 만듭니다.

착한 사과 주스와 착한 배 주스는 화학농약을 일체 쓰지 않고 순수 유기농법으로 키운 유기농 사과와 배로 만들어 고유의 맛과 향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착한 유기농 사과 주스

사과 + 꿀 | 7,000원



착한 유기농 배 주스

배 + 꿀 | 7,000원



· 본 이미지는 연출된 이미지이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TOM N TOMS COFFEE



European Blending Formula
200 years / 200 ans
Le Marche
THE THERAPY

물처럼 가볍게 스며드는 첫 단계 안티에이징
더테라피 퍼스트 세럼

새로운 안티에이징의 시작을 경험하세요. 세안 후 첫 단계부터
미세한 크리스탈 입자가 영양을 촘촘히 채워 건강한 피부를 완성합니다



더테라피 퍼스트 세럼

안티에이징, 보습 효과, 각질 정돈까지
피부 컨디션 상승에 도움을 주는
첫 단계 세럼

The Therapy is an anti-aging cosmetic line (except some products) that embodies blending formula.
La gamme de cosmétiques anti-âge The Therapy (à l'exception de certains produits) est issue d'une formule mélangée.

THE FACE SHOP



半歩千里 한국콜마

좋은 화장품 고르는 방법
체초사를 확인하세요!



당신이 늘 쓰는 것이기에

우수한 화장품을 만드는 기준, CGMP
대한민국 최초 CGMP 1·2호 인증 획득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좋은 화장품,
한 걸음씩 우직하게 내딛는 우보천리의 정신으로
한국콜마가 만들어 갑니다.

kolmar
한국콜마